

영덕에 뿌리내린  
청년 17인의 이야기

# 물빛뿌리

정민희

이광혁

김정현

정하린

한지석

강리안

주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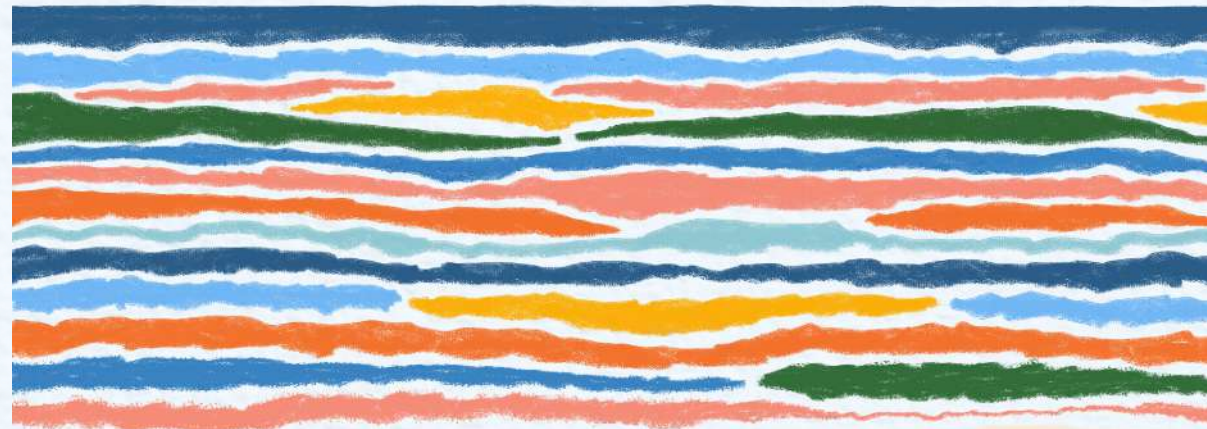
김준수



영덕에 뿌리내린  
청년 17인의 이야기

영덕에 뿌리내린 청년 17인의 이야기 <물빛뿌리>는  
2023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록프로젝트 입니다.

# 물빛뿌리





# 물빛뿌리

‘물빛뿌리’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 영덕으로 이주하여 지금을 사는 열일곱 명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담은 인터뷰집이다. 정착을 위해 제각각의 방법으로 뿌리 깊숙이 내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각기 다른 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들이 한데 묶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즐거워지고 자 하는 마음,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물에는 색깔이 없다. 깊이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물빛은 기억과 발자취를 온몸 곳곳에 가득히 품고 있는 사람과 같다. 같은 단어도 목소리를 입히면 다르게 들리고, 비슷한 경험도 나누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온 세상 사람의 지문이 전부 다르게 생겼듯, 여기 도착하여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고유한 색으로 빛난다.

정든 터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다. 외롭고 가끔은 힘겹지만, 의미를 찾고자 이동해 온 이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고 시도하며 주민으로 살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곳곳하게 서로를 지지해 온 우리가 정답다.

청년들의 고유한 말투와 생각을 담고자 애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담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편안하고 다정하게 오간 대화를 기록하게 되어 기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힘껏 응원한다.



# 목차

## 2. 꿈을 이루는 길목에서

여는 말 ... 4

### 1. 청년의 도시, 영덕을 꿈꾸며



**주현우** ... 12  
**철학이 삶이 될 때**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여행  
 #청년문화예술공동체NIM #일상으로의\_여행

**이광혁** ... 20  
**지속가능한 예술을 위하여**  
 #예술활동가 #음악가 #스퀘이커스  
 #하퍼스 #루즈리듬 #재미난복수 #진심의\_순간



**이지안** ... 28  
**용감한 겁쟁이 사자**  
 #기획자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IM #나의\_고향

**이경훈** ... 36  
**키가 작은 거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연기 #극단  
 #토박이 #꿈은\_이루어\_진다



**한지석** ... 46  
**더불어 사는 삶**  
 #창업 #전통주 #감자당 #반려동물  
 #3년차 #농사 #지역과\_연계

**오성규** ... 54  
**행복을 찾아서**  
 #창업 #쉼터 #디지털 #찐찐박사 #여행  
 #590\_BREAD\_COMPANY #행복을\_찾아서



**김정연, 김준수** ... 62  
**진심의 확장**  
 #창업 #2년차 #커피연구소  
 #3월18일 #영해만세시장 #삶의\_전환

**이수현** ... 72  
**느리게 걷는 걸음**  
 #농사 #식물 #치유 #정착  
 #2년차 #4H #느리게\_사는\_삶



**김소연** ... 80  
**손으로 만드는 사랑**  
 #창업 #상장모 #한복 #디자인  
 #1년차 #업사이클링 #야무진\_손끝





### 3. 예술가의 새로운 터전, 영덕



이의연

... 90

슈퍼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술 #교육 #싱어송라이터 #영덕레코드 #일상\_속\_예술

최형석

... 98

따뜻한 개인주의자

#루츠리딤 #영덕별신굿 #풍물\_전자음악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IM #열정과\_실력



강리안

... 106

울타리 속으로

#창업 #상장모 #그림  
#디자인 #실크스크린 #자유와\_울타리

### 4.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정하린

... 116

다정한 관찰자

#사진 #기록가  
#재미난복수 #고창농악 #성실한\_기록가



고현아

... 124

자유로운 나를 만나다

#대금 #루츠리딤 #연주자  
#어린\_선생님 #새로운\_정체성



김지원, 정민희 ... 132

배움의 연결

#대안학교 #어린\_예술가  
#밴드\_7번국도 #사회에\_첫\_발자국



맷음말

... 144



청년의 도시,      영덕을 꿈꾸며



1

주현우  
이광혁  
이지안  
이경훈





주현우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여행  
#청년문화예술공동체NIM #일상으로의\_여행

# 철학이 삶이 될 때

현우 ▶ 안녕하세요, 주현우입니다. 저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NIM] 대표로 영덕에서 문화예술, 이를 매개로 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공동체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 청년, 산골짜기에서 바다 모랫마을로 —

수영 ▶ 영덕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현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호마을’이라는 작은 산촌이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 [님]을 만들고 활동하다 2022년 영덕으로 이주했습니다.

[님]을 시작하고 소호마을에 2년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머무르던 공간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근처에 공간을 많이 알아봤고, 울주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식구가 많고 상황이 여의찮아서 공간과 조율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저희가 공간을 찾는 게 소문이 났어요. [재미난 복수]에서 영덕에 체험 휴양마을 공간을 위탁 운영하게 됐고, 상주단체를 구한다고 방문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내는 [고래불권역센터]죠. 공간을 보러 와보니 너무 넓고 말끔했어요. 저희가 만약 온다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 보자마자 여기로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수영 ▶ 영덕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떠셨나요? 대식구를 이끌고 이주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현우 ▶ 처음 영덕에 공간을 보러 7번 국도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창 밖 오른쪽에 바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밀도 있는 풍경 속에서 가지산 산골짜기 정기를 받다가, 탁 트인 바다의 풍경을 보니 마음에 맺혀 있는 응어리가 녹아 내리면서 밖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영덕분들께서 저희를 크게 환대해 주셨어요. 여행이나 다른 마을 및 지역에 자리 잡을 때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이 ‘덧세’이기보다는 외지인에 대한 낯센이라고 생각해요. 영덕에서는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오갈 때 관광객인 줄 아셨는데, 매번 보이는 얼굴들이 축제 시즌이나 피서철도 아닌데 꾸준히 보이니까 궁금해하면서도 좋아하셨죠. 때마침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도 많이 제안받았어요. 그렇게 알음알음 활동을 시작했어요.

수영 ▶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현우 ▶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주로 공연으로 선보이는 바디퍼커션이나 바투카다를 배우는 <꿈다락>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캠프도 방학마다 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다양한 청소년들, 지역 친구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을 기반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저희를 정말 좋아해주요. (웃음) 고맙고 좋은 일이지요.

### — 배낭 메고 떠난 여행에서 찾은 독립의 의미 —

수영 ▶ [님]의 대표직을 맡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현우 ▶ [님]을 만들기 이전에는 대안 여행학교의 교사였고, 그전에는 가방 하나 짊어지고 훌쩍 떠났다 돌아오는 여행자 겸 ‘놀고먹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웃음)

수영 ▶ 자신을 여행자라고 소개하는 분은 오랜만입니다. 여행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현우 ▶ 사실 저에게 여행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집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막연히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움아매인 느낌이었어요. 저의 주체성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묶여 있다는 편협한 생각이 있었죠.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몸을 쓰고 일을 하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집에서 독립했고,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행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직업이 여행자인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실제로 다른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셨나요?

현우 ▶ 네.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에는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일주일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내일로] 라는 입석 기차표가 처음 나왔어요. 그걸로 지방 곳곳을 많이 다녔어요.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기도 했고, 친구들 집에도 많이 갔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니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이 생겨서 방학 때 친구들은 집에 가고, 저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 다녔죠. 지역마다 풍기는 분위기나 생활방식이 다르잖아요. 가족마다 가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시선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역 이후에는 국내보다 국외로 많이 다녔어요. 처음 어디로 떠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런데 막상 수중에 그정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가장 오래 여행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인도로 갔습니다. 한 4~5개월 정도 여행했어요.

저는 제가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나 규약을 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온전한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행이 진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주변 네팔과 파키스탄도 돌아다녀 봤어요. 다른 문화권이 궁금해서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열심히 돈 벌어서 아프리카 맨 밀인 남아공부터 이집트까지 육로로 여행도 하고, 터키, 이란, 코카서스 3개국과 유럽 등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수영 ▶ 여행이 여행학교의 교사로 이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현우 ▶ 여행학교를 만났을 때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삶의 방향, 공부, 진로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품에 관한 고민을 깊게 하는 중이었죠.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공인 임상심리학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는데 이 분야를 직업적으로 맞닥뜨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옳은지, 직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잠깐 팀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다시 여행을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여행지였던 인도로 다시 향했고 거기서 여행학교를 만났어요. 그땐 뭔가를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느끼는 열망이 희미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여행학교와 몇 개월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같이 여행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교사로서 어떤 걸 나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했었죠.

여행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향이 맑고 선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의 교육관, 삶을 대하는 방법과 방향, 그 모든걸 학생들과 나누는 방식을 봤어요. 혼자 아닌 다 같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싶어 교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 사람이 좋고, 함께 살아가고픈 마음이 교사로 발현된 거네요.

현우 ▶ 그렇죠. 스무 살에 집에서 나오면서, 세상에 온전히 독립했다고 생각했

어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마냥 뭔가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은 얼마 안가고 자기 자신을 돌켜보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스스로 독립했다고 생각해도 알게 모르게 저를 받쳐주고 도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독립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혼자 이룰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작용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으로 4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 — 서로를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며 —

수영 ▶ [님]은 어떻게 결성하게 되었나요?

현우 ▶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대안적인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안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잖아요. 자기가 배운 마음과 관계, 사회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바깥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의 울타리 안과는 너무 다르죠. 경쟁이 심하고 냉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 부정당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대안학교에서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되게 허황되고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에게 대안학교 교사 이외의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가 가진 대안적인 삶에 궁극적인 의문의 답을 찾는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거죠. 오랫동안 동료였던 교사들과 단체를 만들고 [청년 문화 예술 '공동체' 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영 ▶ 처음 결성했을 때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현우 ▶ 그렇죠. 첫 시작은 학교 안에서 배웠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앞세우려 했어요. 청년과 공연, 예술이란 단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멤버들도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친구들로 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님]을 결성한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어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활동이 제한됐고, 내부에 단원으로 있는 청년들의 성향과 단체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다른 분야로도 확장하게 되었어요.

수영 ▶ [님]은 함께 생활하는 삶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두고 있잖아요. 같이 사는 이유가 있나요?

현우 ▶ 사실 같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본값

인 거죠. 저는 뭔가를 꿈꾸고 행동할 때, 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바를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눠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같은 결의 삶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이 있죠. 그런데도 같이 있을 때 설득과 이해가 훨씬 빠르고 깊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에도 격차가 생겨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모여있지 않아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그때 변하는 순간과 상황에 서로 개입해서 힘이 되어주고, 나도 힘을 받고, 서로 보듬어주면 삶의 철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수영 ▶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현우 ▶ [님]과 다양한 청년들이 단원으로, 주변 관계 인구로 있으면서 혼자 시도해 보지 못한 일, 삶의 방향, 창작의 욕구를 발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장하고, 친구들이 온전히 여기 안에서 뿌리를 내릴 기반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이 [님] 멤버뿐만 아니라 영덕의 청소년들, 청년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관계가 확장되고 발전해서 [님]이 전제로 하는 삶의 방향과 인생관을 나누고,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영덕이나 영해 쪽에 작은 사진관을 열고 싶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찍는 과정을 함께 하는 곳 인거죠.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꿈꾸는 사진관’이란 이름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여행하면서 꾸준히 사진을 찍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집에서 굴러다니던 필름 카메라를 든 게 처음이었죠. 처음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찍었고, 이후에는 클럽활동을 통해 전문 포토그래퍼분들을 만나서 사진의 구도나 어떤 마음으로 셔터를 누르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사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싶어요.

“저는 잘하는 게 많지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옳고 바른 걸 선택하는 것만큼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옳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흔들리지 않고자 애써요. 물론 많이 흔들리죠. 하지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선택을 계속하려면 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어딘가에 고여있으면 안 되죠. 더 많은 걸 보면서 확장하려 노력하고, 선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jooray69 @nim\_officialaccount @nim\_community



# 지속가능한 예술을 위하여



#예술활동가 #음악가 #스카웨이커스 #하퍼스  
#루츠리덤 #재미난복수 #진심의\_순간

광혁 ▶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이자 기획자 이광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메이카 음악 장르를 연주하는 스카(Ska)밴드 [스카웨이커스], 로커빌리(Rockabilly) 밴드 [하퍼스], 퓨전국악팀 [루츠리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음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후배들도 같이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인디레이블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 활동이나 축제, 전시까지 기획하는 일을 폭넓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미난 복수]에서 운영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영덕에서는 [영덕레코드]의 프로듀서이자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 IM]의 이사직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수영 ▶ 예술에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광혁 ▶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부터 물론 지금까지, 예술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된다.' 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류로 진출하지 않고 지역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활동의 지속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과 같이 필요한 단어를 의제화하고, 주위에 노출하고, 저의 직·간접적인 활동이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 — 지속가능한 음악예술을 위한 발걸음 —

수영 ▶ 단순히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음악이 유통, 소비되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군요.

광혁 ▶ 그렇죠. 음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영향력 있는 음악을 누가 만들어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수도권 중심, 메인 플랫폼 중심으로 노래나 장르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은 누구나 다 만들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이 만들고 나머지가 소비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 다양성이 중요하고, 지역이 중요하고, 서브컬처(subculture:하위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낱낱이 보기 힘들잖아요, 음악 활동을 오래 하셨나 봐요.

광혁 ▶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결성한 밴드는 사회적 문제에 반응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민중가요보다 좀 새로운 차원, 다양한 차원의 민중가요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런 만연한 주제가 아닌 노래 말이에요. 소소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해오다가 몇몇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밴드와 음악 활동을 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영 ▶ 모든 동아리가 프로페셔널 밴드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좋은 기회가 있으셨나 봐요.

광혁 ▶ 처음 밴드를 만든 친구와 의기투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일 벌이는 걸 좋아하고, 어디 가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자기 어필을 잘했어요. 처음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할 정도로 맨땅에 헤딩했죠. 계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음반시장에 정착할 수 있었고, 저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밴드 활동과 함께 컨설팅도 하고 프로듀싱을 해주면서 후학을 양성했죠. 이렇게 부산에서 음악 씬(Scene:업계)이 되고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더라고요. 활동이 운동으로 인식이 되고 작업과 활동이 병행되면서 빠르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나름대로 평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수영 ▶ 후배 세대의 양성과 지역음악 문화의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광혁 ▶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런 고민과 활동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모든 우주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타자가 있고, 타자가 있어야 내

가 있죠. 그렇다면 음악 예술가들은 자기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음악'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음악을 만들고 즐기면서 '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시장도 확장되고 우리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려는 길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직과 단체가 필요했어요. '우리'만 잘 나가는 건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빨리 인지한 후배들도 먼저 찾아와 줬죠. 여태까지 한 10팀 정도를 메이킹, 컨설팅해서 앨범까지 내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영 ▶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광혁 ▶ 전라적 선택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먼저 듣게 되요. 많이 듣다 보면 좋아지죠.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에 노출되는지가 중요한데, 주류 음악은 힘이 세죠. 일단 귀에 때려 박는 거예요. 자주, 많이. 그러면 그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상품들은 눈과 귀가 즐거운 양질의 콘텐츠예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나의 취향과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맹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디문화나 지역 씬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세대가 활동을 탄탄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자리 잡아줘야 메인 스트림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서도 특정한 장르를 더 좋아해 보고, 연주해 보자고 선택한 거죠. 그게 대중성이 없거나 인기가 없어도 말이에요.

### — 예술가가 기획을 시작하기까지 —

수영 ▶ 지금 문화기획 일도 하시잖아요. 음악과 예술에서 어떻게 기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나요?

광혁 ▶ 음악 활동만 해서 먹고살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레슨이나 음악에 관련된 직업으로 먹고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쯤 제가 만든 음악은 상품성이 좋았지만, 유통이나 판촉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기획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재미난 복수]라는 문화기획단체의 초기 멤버가 되었고, 지금까지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영 ▶ 이렇게 딱 찬 부산에서의 삶을 두고 어떻게 영덕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광혁 ▶ 이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저는 부산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부산 청년 예술가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루츠리덤]을 같이 하고 있는 형석이가 영덕 별신굿 전수자로 들어갔어요. 같이 영덕을 오가다가 문화재단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다보니 영덕에서 함께 활동해 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 했던 게 <영덕쿵덕>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영덕 오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문화 난장을 벌리는 거죠. 저희는 늘 거리문화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미 익숙한 작업이었죠. 옷통 끼고 홍보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렇게 B급 영상으로 영덕에 데뷔하고, 시장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즐겨보니 영덕이라는 곳에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영덕은 청년인구가 너무 적고 인구소멸 지역인데, 이런 곳일수록 정말로 문화예술이 필요하고 문화예술로 도시를 다시 브랜딩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워요. 그런 걸 맞닥뜨리고 나니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이제 청년을 벗어나는 시점에 있고, 앞으로 나의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던 와중이었거든요. 부산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도시지만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어요. 청년들은 남아돌죠. 특히 청년 예술가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굳이 부산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만들며 예술세계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영덕에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덕은 우리의 문화 예술기획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친구들과 상의해서, 영덕에서 도전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 — 청년과 문화의 도시, 영덕을 꿈꾸며 —

수영 ▶ 연고 없이 타 지역에서 무작정 원가를 해보기엔 어렵지 않나요?

광혁 ▶ 트리거(trigger:촉발자, 방아쇠)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무언가에 불을 당기는 일이 항상 재밌고 즐거워요. 내가 처음이면 신나는 성향이라 무작정 원가 하는 건 힘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행복해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 이후가 힘들죠. 불꽃이 튼 후에 연결되고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쫓르르 달려가서 잘하는 것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걸 나누면 그쪽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후에 그 반응으로 나온 결과를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고, 안착시키고, 지역에 녹아드는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가 본전인 거죠.

‘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밀려서 지역으로 왔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해요. 지금 영덕과 청년정책을 같이 보자면 우리의 가능성을 증명하겠다는 청년들의 당찬 패기와 열정이 필요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그럼 지금 영덕에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혁 ▶ 키워드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덕에 와서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아야죠. 영덕에는 영덕에 맞는 도시디자인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킬 거라는 슬로건, 정확한 산업 분야가 필요해요. 청년 창업이 가계 몇 개 개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앞으로 사람들이 영덕을 인식할 때 ‘청년과 문화의 도시, 영덕’으로 보일 수

있게 지역을 브랜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수영 ▶ **삶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거나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요.**

광혁 ▶ 영덕에 왔던 시기랑 맞물려요. 저는 부산에서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잘나갔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었죠.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이 받을 수도 있고, 도움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저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던 거예요. 영덕에 올 때쯤 제가 공황장애가 와서, 활동을 많이 정리했는데 코로나랑 또 맞물린 거죠. 쉬면서 중년에 접어드는 시간에 대해 자각도 했고, 제 가치를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프로듀싱 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음악에도 집중해서 음악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고요. 그때가 저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년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정리했고, 그런 생각이 저를 더욱 영덕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수영 ▶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바빠서 가정과 충돌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웃음)**

광혁 ▶ 저는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 잘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오늘 만났으면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성향과 특성상 한 사람, 또는 한 그룹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어쨌건 시간은 유한하고 누군가에게 시간의 한 부분을 내준다는 건 결심 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자. 심장에 남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의 가족도 알아주고 있어요. 물론 많이 싸우지만, 어찌겠습니까? 제가 저로 존재할 때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고, 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할 때 사랑하니까 서로 모든 걸 어설프게 맞추기 보다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생활적으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수영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혁 ▶ 지역에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영덕이라는 곳이 영덕으로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건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영덕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역음악 레이블인 [영덕레코드]를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래와 앨범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요. 소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는 일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만들어지는 음악과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좋은 모델로 완성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싶습니다.

“ 저는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밴드로서 누릴 수 있는 건 이미 많이 누렸어요. 내로라하는 페스티벌, 큰 무대, 해외 초청공연도 다녀왔고 방송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호기심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중년 이후에도 예술가의 삶을 잘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기획자와 예술가의 워라블(Work-Life Blending: 일과 삶의 조화)이죠. 그게 제일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이 지역과 함께 가면 좋겠어요.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활동이 주목받고 존경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갈 생각이 없어요. ”

@skawakers\_official @rockabillyhoppers\_official @roots\_redeem @funny.revenge





# 이지안

#기획자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IM #나의\_고향

## 용감한 겁쟁이 사자

지안 ▶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영덕에서 산 지 1년 되어가는 기획자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수영 ▶ 기획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지안 ▶ 기획자는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더불어 일을 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하고, 사람들을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 사람이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 부분으로 기획에 입문해서 청년으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청년과 관련된 기획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연기획이나 도시재생 같은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을 한 지는 이제 6년이 되었구요, 기획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도맡아 하게 돼서 n잡러(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진 사람)가 되었어요.

수영 ▶ 기획자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지안 ▶ 저는 연극을 하는 배우였어요. 입시경쟁에도 뛰어들어 보고 학교도 다니며 연기를 공부했죠. 배우 활동도 하고 극단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연극을 수단으로 다양성을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일부 연극계가 가진 악습이 관습화되는 문화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수단이 꼭 연극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획으로 전향했습니다.

## — 기획을 통한 삶의 확장 —

수영 ▶ 자기표현의 방식이 연극에서 기획으로 전향이 되었군요. 많은 직업군 중 기획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지안 ▶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였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살아가려니 연극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막했죠. 그때 저에게 연극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제가 문화예술교육이랑 잘 맞는 것 같으니, 청소년 문화예술시설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공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어머니께서는 성적표도 확인 안 하시는 독특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단순히 과목에 지나지 않고, 경험으로 다가오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어요. 이를 테면 숲속에 가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을 스스로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보다는 감성을 키우고 확장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수영 ▶ 관심사가 ‘문화예술교육’에서 ‘청년’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셨어요.

지안 ▶ 네. 그때도 기획자로 활동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서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이 워낙 많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여성 활동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 당사자로 다른 기획자분들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알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길 위에서 스승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오래 나누다 보니 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발굴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청년’, 그리고 ‘문화예술’이 되다 보니, 발 맞춰서 전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영 ▶ 활동반경이 늘어나면 좀 큰 무대에서 기획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서울에 가서 활동하고픈 마음은 없었나요?

지안 ▶ 제가 연극할 때 한 4년 정도 서울에 살았는데, 그 삶도 저에게는 알맞은 삶은 아니에요. 좀 고단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족들이 있는 작은 단위에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횡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청년’에서 ‘공연기획’과 ‘도시재생’으로 또 한 번 확장을 경험하셨다고요.

지안 ▶ 네. 수도권 아닌 어느 지역이든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때 ‘문화 예술’을 매개로 기획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눈에 띄었다고 생각해요. 이점이 많았어요. 그렇게 활동 기회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영덕으로 온 것 같아요. 도시를 재생하고, 죽어가는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에 재미와 의미를 느낍니다.

수영 ▶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크게 변화가 일어난 곳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요?

지안 ▶ 저는 약 3년 전까지 부산 중구 원도심인 영주동에서 활동했어요. 부산 안에서는 인구소멸 지역이었는데,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곳에 친구들이 삶을 지속하며 카페를 연다든지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소지역 단위에서의 자생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와 같은 도시재생, 마을재생,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들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

수영 ▶ 부산에서 영덕으로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지안 ▶ 사실 저는 여태까지 부산을 떠나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산에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을을 만들고자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영덕 별신굿 전수자가 되어서 같이 영덕에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가면서 행사를 몇 차례 진행하며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자주 오가게 되다 보니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는 러스틱 라이프를 지향하거든요. 느리고 편견없는 삶. 어떤 일상을 가진 사람도, 어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나에게 거창한 꿈이 없더라도 친구들과 재밌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수영 ▶ 지향점이 있다고 해도 부산에서 활동하다 영덕으로 지역을 옮기니 적응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안 ▶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게 좀 힘들었죠. 친구들과 함께 일을 많이 해왔고, 필요한 포지션을 도맡으며 활동하다 보니 합이 잘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영덕으로 터전을 옮기니까 부산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을 이전하는 게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복합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부산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다 저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서, 언제든지 오고 가며 지낼 수 있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최근에 생겼어요. 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영 ▶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지안 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면요?

지안 ▶ 저는 그 순간에 만나고 집중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사람이라서 제 인생에서 지금 친하고, 서로를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을 꼽자면 지금 있는 회사인 [재미난 복수]의 광혁 님입니다.

저는 보통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기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고 파고들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운동가의 역할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획자는 ‘사람’을 수단으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직업인데 운동성 없이 자본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제 인생이 너무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골똘히 가지고 있는데 광혁 님을 만났죠. 광혁 님은 사회적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집단과 단체를 만들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칭하는 직업이 예술활동가(아티비스트:Artist)예요. 그들이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예술로 풀어내는 방식이 멋져서 동경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 — 서로에게 고향이 되는 삶 —

수영 ▶ 영덕에서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안 ▶ 저는 여기서 도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같은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이 늘 따라붙잖아요.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시적 요소도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도시 디자인은 물론 도시재생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풍요롭게 조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영덕에서 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기술자를 연결해서 하나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계속 해내고 싶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 때문에 영덕이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올해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을 많이 했어요. 문화예술과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활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섭렵하는 중입니다.

수영 ▶ 영덕에서 문화 예술에 관련된 청년들이 모인 협동조합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 IM]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안 ▶ 저는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 IM]에서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덕에서 IM을 통해서 축제를 휩쓸고 싶습니다. (웃음) 저희 주변



에는 [영덕레코드]나 [7번 국도], [이우주], [The 소리풍경] 같은 좋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뮤지션들과 같이 축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서브컬처를 구성해 나가고 싶어요.

수영 ▶ **당찬 포부와 목표를 정말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안 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안 ▶ 저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로, 자신의 모양새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존중받는 삶을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고 싶어요.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서 언제든지 서로 오갈 수 있는 터전, 고향을 만들고 싶어요. 물리적 공간에서 같이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다양한 삶을 찾아다니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수영 ▶ **지안 님의 러스틱 라이프를 함께하고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지안 ▶ 일단 지역에 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와야 해요. 요즘엔 모두들 너무 타인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본인에게 원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지역으로 와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각자가 다른 질문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살아보면 예상치 못한 사람과 상황, 그리고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생각거리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저는 살면서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용기’라는 단어를 타협하지 않고 가지고 갑니다. 저는 용기를 잃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구요. 좀 건방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빛이 나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용기를 잃고 좌절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살아남기 위한 모토예요. 여전히 겁이 많죠. 하지만 용기를 가진 겁쟁이 사자는, 무서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

📱 @zza\_ny @funny.revenge @yd\_art\_mt





# 이경훈

#영덕문화관광재단 #연기  
#극단 #토박이 #꿈은\_이루어\_진다

## 키가 작은 거인

수영 ▶ 영덕에서 오랫동안 사셨나요?

경훈 ▶ 거의 30년 이상 살았죠. 여기 토박이예요. 군청 근처에서 살았고 학창 시절을 전부 영덕에서 보냈습니다.

수영 ▶ 그럼 타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건가요?

경훈 ▶ 아닙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영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영덕이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 학창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욱 열악했습니다. 영화도 보기 힘들었고, 보려면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공연과 연극, 연기 관련직으로 활동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덕에서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 오가면서 연기도 배우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더더욱 문화 활동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엄청 활발하다기보다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선 좀 괴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진학하게 되었죠.

## — 마음 속 이야기를 관객과의 소통으로 해소하던 시간 —

수영 ▶ 연기랑 연극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경훈 ▶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어요. 영덕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연극을 보여준다고 해서 학교 친구들과 예주문화예술회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라이어>라는 극을 처음 봤어요. 국민연극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유명한 극이죠. <라이어>를 본 후로 계속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을 자리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아리로 연극부에서 활동했고,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 레슨을 받았습니다.

수영 ▶ 서울에서 연기를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영덕에서 서울은 지금도 멀지만, 그때는 더욱 오가기가 고단했을 것 같아요.

경훈 ▶ 엄청 멀었죠. 연기학원 주말반에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학원까지 가는데 거의 다섯 시간 넘게 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노는 토요일’이 생겼거든요. 주 5일제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죠. 토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수업 중간에 나와서 혼자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야간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학교로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힘들다기보다는 즐겁다는 느낌이 더 커서, 재밌어하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수영 ▶ 성인이 되고는 연기의 꿈을 펼치러 서울로 가신 건가요?

경훈 ▶ 아니요, 대구로 진학을 해서 대구에서 생활했습니다. 대구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습니다. 솔직히 연기에서 배우의 생김새나 외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오가다 보니까 제가 비주얼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컸던 거죠. 그래서 입시 때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 연기과에 합격은 했는데, 그냥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광고 역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감행했습니다.

수영 ▶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경훈님께 중요한 일인가 봐요.

경훈 ▶ 저는 사람들이 좋고, 되도록 서로에게 날 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같이 해나가자고 다독이는 소통방식을 좋아했어요. 제가 연기를 뒤로하고 광고 관련학과에 진학한 것도 비슷한 흐름이었습시다. 하나의 광고를 기획하기 위해서 집중 타겟을 선정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 의사소통과 접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짝사랑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웃음)

수영 ▶ 연기와 연극에서도 소통을 찾으셨던 거예요?

경훈 ▶ 네. 소통은 저에게 중요한 소재였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통의 부재에

관해 비판하는 내용의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많은 극본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유쾌한 것보다 철학적인 질문에 접근하는 극에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와 캐릭터의 인물 분석에 충실했어요. 대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충실히 분석하며 연극 연습을 했었어요. 저와 작가, 그리고 그 역할 사이의 소통에 집중했죠.

수영 ▶ 기억에 남는 역할이나 극이 있다면요?

경훈 ▶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에드워드 올비의 <동물원 이야기>라는 작품이에요. 미국 희곡인데, 고도의 산업화 혁명으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공원에 낫은 남자 둘이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처럼요. 공원 벤치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상대방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래





서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나죠. 대화와 교류의 단절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극에서 주인공을 했고 내용도 저에게 아주 와닿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영 ▶ 연기와 연극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 담고 싶은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훈 ▶ 저는 저의 작은 키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많이 소심했  
고요. 그런데 연극은 활자로 적힌 대본의 이야기를 입체적인 연기로 풀어  
어내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연극  
을 통해서 해소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소화하며 에너지를 발산했  
던 것 같습니다.

수영 ▶ 그러면 연극은 대학 진학을 끝으로 안 하시는 건가요?

경훈 ▶ 아닙니다. (웃음) 20살 되면서는 연극을 포기했는데, 어쩌다가 또 극단  
에 불려 나가서 계속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대학 다니고 저녁에  
는 극단에서 지냈죠. 저는 대구 극단 [예전]에서 주로 고전 작품을 위주  
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어요. 프랑스혁명 시기  
의 혁명가, 7살짜리 아이, 군인, 할아버지 등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  
을 뽐냈던 기억이 나네요.

### — 고향으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

수영 ▶ 졸업하고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경훈 ▶ 2016년에 졸업하고는 영덕에 다시 내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저는 외동이기도 했고요.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친척분들도 다  
시 영덕으로 내려가라고 독려하시더라고요. 다시 영덕으로 내려와서는  
여태 해온 연기나 광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들을 했어요. 학습지 교  
사 하면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영덕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대구로 가고, 일회성 연극이나 행사 있으면  
나가서 역할을 맡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지금 일하고 있  
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전신인 [영덕문화원]에서 계약직으로 어르신들 문  
화강의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했던 시간이 좋은  
발판이 되어줘서 올해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입사하게 된 것 같아요.

수영 ▶ 지금은 영덕에서 완전히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경훈 ▶ 네. 도시와는 다르게 여기는 공기가 맑고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잖아요.

저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래서 편안하고 무던하게 시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 도시로 나가기 전(의) 경훈 님의 마음과, 다시 영덕으로 돌아오고 나서의 마음은 사뭇  
달라졌을 것 같아요.

경훈 ▶ 그렇죠. 도시로 이동하고, 다시 내려오고. 또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  
복하는 과정이 단순한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다시 영덕에 자리 잡았  
지만 개인사도 있고 문화적인 소외감도 있다 보니 영덕 안에서도 충돌  
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찌 되었건 제가 나고 자란 동네잖아요.  
익숙함이 주는 힘도 있는 거죠. 도시에는 연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외롭  
고, 각박하게 흘러가는 삶이 싫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거리를 걸어가  
면 다수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편안함이 있고, 언제든지 힘들 때 이야  
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그게 좋고 힘이 됩니다.

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훈 ▶ 음, 부모님이 영덕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  
고,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결정적으로 제가 영덕으로 돌아  
온 계기가 가족들 때문이고, 아버지 돌아가기 전만 해도 저는 계속 도시  
오가면서 연극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덕에도 문화와 관련된 재단이 생기고, 그곳에서 일도 하게 되  
고요.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 중 하나입니  
다. 음,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좀 꿈이기도 했어요. 연극을 하다 보니 재  
단이 하는 일의 중요도가 보였어요.

수영 ▶ 재단에서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경훈 ▶ 저는 영덕 사람이고, 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영덕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했었잖아요. 군민극단 활동도 계속 했었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걸  
강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영덕 주민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지역주민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단은 주민들이 뭔  
가를 다채롭게 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만큼 잘되지는 않네요. (웃음) 역량을 키워야죠.

### — 영덕에서 함께 사유하고 활동할 동료와 극단을 소망하다 —

수영 ▶ 군민극단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경훈 ▶ 지금은 잠시 멈췄어요. 연극이라는 게 워낙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 혹시 폐 끼칠까 봐 안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군민극단에서 활동할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연극과 연기를 연구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역량이 크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진지함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결과물로서의 연극공연뿐만 아니라 과정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그런 연구와 고민의 집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화려하기보다는 생각을 깊이 가져갈 수 있는 극단을 구성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수영 ▶ 정말 멋지네요. 영덕에 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경훈 ▶ 영덕은 도시와는 반대의 의미로 기회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도시에는 뭐든지 집중되고 과밀화되어서 기회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작도 못 해보는 분야가 있기도 하잖아요. 지역은 그에 비해 느슨하고 유입이 느리니까 오히려 도전해서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에서의 삶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덕으로 온다면 이곳에서 여윌롭고, 조용하고, 풍경과 함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자신의 꿈을 찾으면 좋겠어요.

“ 저는 항상 저를 ‘키가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요. 저는 키가 작아도 정말 단단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단단하게 사는 키가 작은 거인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확고함과 책임감을 늘 기억하며 누가 뭐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

@ydct\_official @leekyeonghooon  
<https://www.ydct.org>





꿈을 이루는 길목에서

2

한지석  
오성규  
김정연, 김준수  
이수현  
김소연

# 더불어 사는 삶

## 한지석

#창업 #전통주 #감자당 #반려동물  
#3년차 #농사 #지역과\_연계

지석 ▶ 영덕살이 3년 차, 27살 한지석입니다. 영덕에서 농사도 짓고, 영덕읍 내에서 전통주에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 농사와 창업이라. 3년이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셨네요. 영덕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지석 ▶ 저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고, 전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영덕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춘천에서 전주에 있는 한식조리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전주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학교가 끝날 때쯤, 영덕에 연고나 인프라가 없는 청년들이 로컬에서 살아보는 <뚜벅이 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영덕에 와서 10주 정도 살다 보니까 영덕의 자연환경이랑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전주에서 술을 빚고 관계를 맺으며 계속 지내려고 했었는데, 영덕에 있는 농산물로 술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고 이곳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진행하기에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서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며 사는 삶이 즐거워서 춘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 함께 흘리는 땀에 갠 정 —

수영 ▶ 거처를 옮긴 것과 농사를 시작하는 것, 모두 새로운 시도였네요.

지석 ▶ 사실 농사로 무작정 뛰어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빚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농가랑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무턱대고 농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막막했는데, 근처에 계시는 농장주분이 청년 농업인 봉사단체인 4H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배우며 농사를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농사를 시작했죠. 제 밭도 가꾸고, 품앗이도 하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수영 ▶ 어떤 작물을 농사지어 보셨나요?

지석 ▶ 첫해에는 옥수수랑 고구마, 두 번째 해에는 초당 옥수수랑 사탕수수를 했습니다. 제가 술 공방을 운영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걸 듣고, 주변 분들이 작물을 추천해 주셨어요. 낫다 심고 재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척 잘 자랐고, 럼을 만들어 봤는데 주변 반응도 좋아서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농사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고된 일인데, 농사짓고 몸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바가 크셨던 건가요?

지석 ▶ 사실 단순히 몸 쓰는 일로만 생각하면 농사가 잘 맞아요. 하지만 어려운 점은 역시 농산물 판로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는 점. 이런 농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수영 ▶ 농업인으로서의 어려움을 제대로 겪으셨던 거군요.

지석 ▶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재미도 없어져요. 열심히 가꾸고 일하는데 수확하고 나면 공판장 가격에 따라서만 값어치가 매겨지거든요. 안 팔리면 버리거나 떨이로 팔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예전부터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니까 변화도 없고 재미도 사라지곤 해요. 그래서 술이나 주조랑 연계하면서 변화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하기에도 좋은 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수영 ▶ 농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도움받으신 게 지석 님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주었을 것 같아요.

지석 ▶ 네, 사실 농사를 할 때 국가지원금 같은 경제적 도움은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좋았어요. 4H 회원분들이나 주변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농사짓는 걸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이 전해지면 별말씀 없으시면서도 그냥 트랙터 끌고 와서 갈아주시고, 창고도 빌려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정(情)을 느끼고,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수영 ▶ **농사와 창업, 두 가지는 보통 직장인과 다른 일상을 보낼 것 같은데,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시나요?**

지석 ▶ 농사는 일출과 동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실 책임질 수 있다면 늦잠을 자도 괜찮아요. 다만 해가 지면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당일 해야 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된다는 걸 감안해야죠.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창업은 24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 아니, 백까지 다 생각해도 모자란 것 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

수영 ▶ **술을 빚는다고 하셨잖아요. 전통주를 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지석 ▶ 제가 전공이 한식이다 보니까, 장, 차, 술, 식을 기본으로 하는 발효 계열 공부를 계속 접해 왔었어요. 발효에서는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술을 시작했어요. 흔히 아는 막걸리, 소주, 탁주, 약주, 청주... 저는 많은 술 중에 전통주가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한식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요. 어떻게 마시면 배부른 술도 되고 어떻게 마시면 깔끔한 술도 되어서 변화무쌍하죠. 전통주라는 커다란 장르가 있으니, 그 안에 많은 술이 담겨있어요. 유동적이어도 포용할 수 있고 울타리가 넓으니 확장도 편안하고요.

지금은 최소 기능으로 공방을 운영해서 전통주를 빚는 체험 클래스를 진행하고, 전통주를 마실 수 있는 바(bar)를 운영하려고 해요. 체험 클래스 공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나오는 쌀과 과일, 기타 임산물 가지고 나만의 막걸리 만들기, 나만의 소주 만들기 이런 걸 할 생각입니다.

수영 ▶ **지역과 연계를 하려고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지석 ▶ 지역에 살면서 지역과 연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굳이 여기서 살아가고,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불어서 사는 삶을 지향하고 공방도 함께 연결된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조 체험을 한다면 본인들이 쓰는 재료를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농가 체험까지 연계해 보려고 해요. 잘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수영 ▶ **‘더불어 산다’가 지석 님에게 중요하고 행복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석 ▶ 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 한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

람을 좋아했고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노는 걸 좋아해요. 서로가 함께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제가 받는 도움도 있고, 물론 제가 도움을 줬을 때 가지는 행복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람들이랑 엮여서 살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모두 담긴 공간을 만들다 —

수영 ▶ **지석 님의 공방은 한창 공사 중이시죠. 공사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지석 ▶ 처음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공장부지를 알아봤었는데, 공장은 현재 저의 역량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금이 나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하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소규모로 여러 사람과 술을 빚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방향을 공방으로 돌렸어요.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고 나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좀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공사 중인 전통주 공방은 읍내에 위치해서 영덕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오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체험 공방으로, 해가 지면 전통주 베이스의 바(bar)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영 ▶ **인테리어를 혼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원래 인테리어를 하셨던 건가요?**

지석 ▶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건 아예 처음이에요. 마치 <아기 돼지 삼 형제> 같지요. 공간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고민이 아닌 게 없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진행하고, 뒤늦게 후회하고를 반복하는 중이에요. 이 공간 자체가 시행착오의 공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 공간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조금 힘에 부쳤거든요. 혼자서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은 전기나 배선처럼 전문가의 영역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연히 좋은 분 만나서 도움받고 있죠.

수영 ▶ **공간의 이름이 [감자당]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석 ▶ 첫 번째는 달 감(甘)에 종자를 뜻하는 아들 자(子)를 넣어서, 쌀처럼 달콤한 종자나 과일들의 단맛을 내는,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로 술을 만드는 공간(堂)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의 의미도 있죠. 강원도가 감자가 유명해서 감자국이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반려견 이름이 감자거든요. 제 공방은 반려동



물 동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한 거지요.

수영 ▶ 반려동물과 바(bar), 생소한데요?

지석 ▶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꽤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영덕은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1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객 중에서도 반려견과 같이 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나 추가한 거죠. ‘그냥 데려오면 되지.’라는 느낌으로.

수영 ▶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반려견과 함께 하셨나요?

지석 ▶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이 었거든요. 그런데 춘천에서는 부모님 밑에 있었고, 전주에서는 학교 다니고. 어쩔 수 없이 키우지 못하다가, 영덕에 오면서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어느 시골집에 강아지가 태어났으니 데려가실 분 데려가라는 글을 보고 포항으로 향했죠. 직접 데려왔는데 처음 봤을 때 그 강아지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수영 ▶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인데 엄청나게 큰 위안을 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감자와 만나고 난 전과 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석 ▶ 맞아요. 제일 크게 체감했던 건 감자한테 말을 걸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예요. 저는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없었는데, 감자랑 있으면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계속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혼자인 집에 가기 싫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집보다 밖에 있는 게 좋았는데 감자가 있으니까 자꾸 집에 가고 싶어져요. 감자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애뜻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수영 ▶ 여태 요리에서 술, 춘천에서 전주에서 영덕, 처음 해보는 농사. 작지 않은 변화와 함께하셨네요. 터전과 종목이 변화하는 순간에 계신 지석 님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석 ▶ 음, 아무래도 저도 달라졌죠. 이 정도까지 맨땅에 헤딩인 도전은 처음이었어요.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앞뒤 안 재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일단 해보지 뭐.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영덕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해야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MBTI로 보면 P에서 J로, F에서 T로 변한 거죠. 변화 폭이 너무 커서 사춘기가 이제 오는 건가 싶고, 그래서 사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수영 ▶ 타 지역에서 영덕으로 오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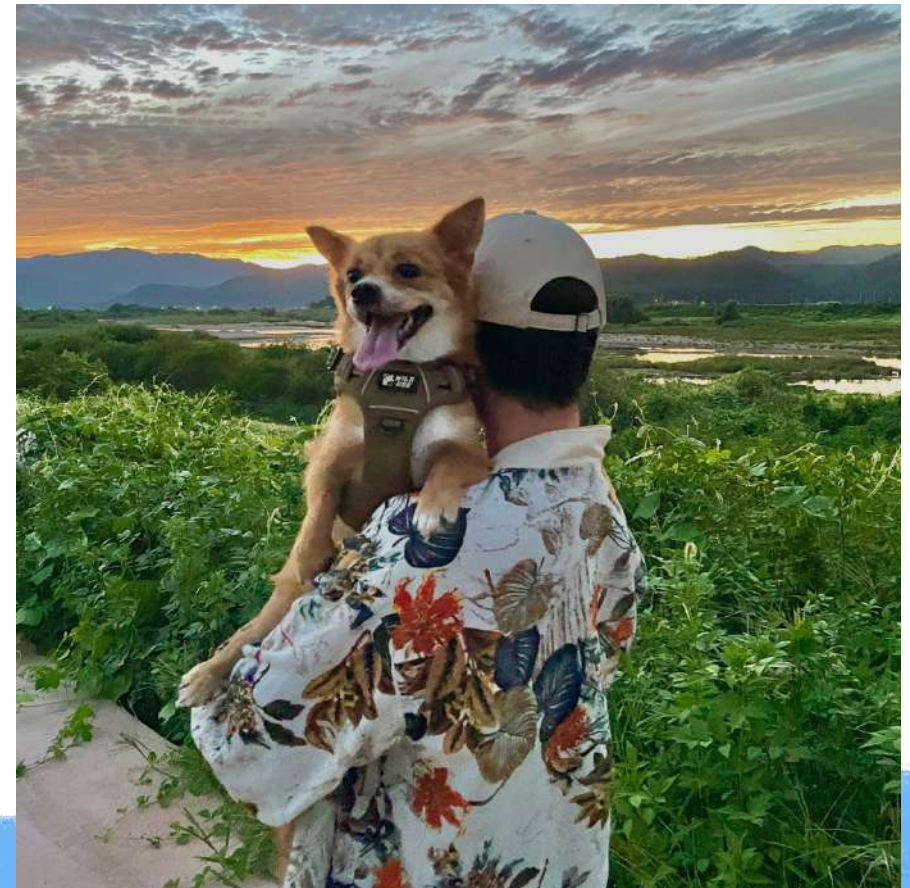
지석 ▶ 일단 제발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고, 하다못해 상권을 조성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힘이 실리지 않아요. 함께할 동지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오세요. 많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수영 ▶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나요?

지석 ▶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 중,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나쁜 사람 한 둘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타지에서 살아가는 데 관계가 중요하고 결정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저는 어찌 됐든 많은 청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애쓰면, 진짜 하려고 애쓰면 되어버린다는 마음으로 3년째,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

@ji\_7798\_ @gamja\_the\_fox





# 오성규

#창업 #쉼터 #디저트 #찹찹박사 #여행  
#3년차 #590\_BREAD\_COMPANY #행복을\_찾아서

## 행복을 찾아서

수영 ▶ 영덕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성규 ▶ 영해에서 [590 브레드 컴퍼니]라는 디저트 카페이자 쉼터를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 '쉼터'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성규 ▶ 제가 영덕을 알고 정착하게 되면서 블루로드를 여러 차례 걸었는데 여기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공간,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에 계속 살게 된다면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쉼터'를 착안했고, 여기서 먹거리를 고민하다 보니 베이커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 원래도 디저트를 만드셨나요?

성규 ▶ 아닙니다. 저는 제빵이나 제과를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흔히들 말하는 '찹찹 박사'죠. 먹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미식가는 아니지만 어디를 가도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나 제빵처럼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덕에서 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작물을 이용해서 베이킹을 해보고자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지원도 받으면서 [590 브레드 컴퍼니]를 꾸며나가는 중입니다.

수영 ▶ 영덕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성규 ▶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LG이노텍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영덕에 본가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많이 믿었고, 사이가 좋았



지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잠시 제주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영덕에 <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다며 권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올린 블로그 게시글이나 사진, 영상을 보고 이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부터 머물고 있습니다.

수영 ▶ 어떤 심경의 변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가셨나요?

성규 ▶ 이전에 저는 도시에서 평범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눈만 붙이면 자던 제가 점점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걸 좋아해서 제주도를 일 년에 네다섯 번씩 다녔거든요. 그러던 차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로 내려갔다가, 영덕으로 오게 된 거죠.



수영 ▶ 직장을 그만두고 거처를 옮기고.... 크게 이동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요?

성규 ▶ 제가 원래는 해양측량을 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수로기술자로 동해, 서해, 남해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섬이란 섬은 다 다녀봤죠. 1년에 한 번씩 사업에 따라 이동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에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한 5년 정도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1년 정도 살다오고.... 그러다 보니 이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셔도 어떤 일이나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데에 더 집중해왔습니다.

## — 방랑이 유량이 되기까지 —

수영 ▶ 여행도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성규 ▶ 네. 제가 한 1년 가까이 육지측량을 하다가 해양측량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원래 여행도 좋아했고 바다도 좋아했는데, 섬이라는 곳이 여행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쁜 섬도 많고, 내가 못 가 본 데도 너무 많은데 해양측량 일을 하면 온갖 곳에 다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 저는 아버지랑 잘 안 맞았어요. 다른 가족들 이야기로는 제가 아버지랑 똑같아서 그렇대요. (웃음) 좀 떼면 떼면 하기도 했고 뭔가 한마디 던지실 때는 항상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다 보니 아버지 대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취직하고 많이 돌아다녔죠.

수영 ▶ 한국에서 여행 가본 곳 중 가장 좋았던 곳은요?

성규 ▶ 저는 제주도를 좋아해요. 산도 좋아하지만 바다를 많이 좋아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마라도예요. 제주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 서귀포 선착장에서 배 타고 들어가요. 안에서 골프카트 빌려서 한 바퀴 돌면 10분이고, 걸어 다녀도 한두 시간 정도인 작은 섬이에요. 그곳에 숙소를 잡고 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무인도에 살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거든요. 사면이 바다인데 눈길 닿는 곳마다 느낌이 다른 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마라도에 결심을 하고 갔던 거라 더 의미 있게 남았어요.

수영 ▶ 결심을 위한 여행이라, 정말 중대한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심이었나요?

성규 ▶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갔어요. 원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이끌려 가지 말고 내가 개척해 보고자 하는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걸 다 이루고 나면 다시 한번 마라도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심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 가보고 있습니다. (웃음)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들 배 타고 나가고 나서 저는 숙소까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걸었어요. 가다가 쉬고, 움직이다 앉아보고. 해 지고 나면 하늘 보는 것도 좋았어요. 영덕에 와서 좋아했던 점도 그거예요. 해 지고 난 뒤에 불 없는 캄캄한 곳으로 가면 별이 정말 많아요. 별자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보이는 그 광경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 — 유랑이 정착으로 이어지다 —

수영 ▶ 영덕을 소개해 준 친구의 신뢰가 높더라도 제주가 더 좋았으면 계속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를 자주 가실 만큼 좋은 감정이나 애정이 있으셨는데도 영덕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성규 ▶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두 곳 다 연고가 없었지만 제주랑 비교하자면 영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나, 연결이 더 좋았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일하면서도 느꼈던 건,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데 사람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었어요. 제가 관계에서 오는 피로나 감정 소모, 그리고 스트레스에 예민한 편이어서 잔잔한 힘들이가 제 속에 깔려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영 ▶ 블루로드를 걸으면서 지금의 삶을 구상했다고 하셨어요.

성규 ▶ 저는 원래 걷는 걸 좋아해요. 천천히 걸으면서 뭔가 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기도 했고 천천히 걸음으로써 얻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두박이 마을]에 합류했을 때 가장 좋아한 부분도 ‘천천히 걷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좀 더 천천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게도 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가네요. 저는 사업장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손대서 개업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영 ▶ 여기 와서는 어떤 걸 해보셨나요?

성규 ▶ 많은 일을 해봤죠. 농사부터 시작했어요. 시금치, 배추, 무, 자두, 사과... 작물도 길러보고 태풍이나 바람 때문에 떨어진 과일도 주워보고, 품앗이도 하곤 했어요.

저는 일단 시작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장 오픈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시장 안쪽에서 오픈하려고 준비하다가 이래저래 많은 이유로 한 번 고배를 마시고, 옆집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다가 지금 위치에 가게를 구했어요. 뭐라도 해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창업이랑, 단순히 일을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수영 ▶ 가게 이름이 [590 브레드 컴퍼니]입니다. 색깔도 디저트 카페가 잘 쓰지 않는 검은색을 쓰셨어요. 이유가 있다면?

성규 ▶ 저희 가족들은 저를 ‘오군, 오군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게 저한테 익숙한 별명이지요. ‘오군’인 제가 만드는 ‘빵’이니가 숫자로 오군빵(590)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덕에서 나는 재료들을 섞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원래 모든 색을 섞게 되면 마지막엔 검은색이 되니까, 저도 합쳐진다





는 데에 의미를 둔 거죠. 그리고 저는 원래 까만색을 좋아합니다. (웃음)

수영 ▶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나 농산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빵이 있다면요?

성규 ▶ 감자 케이크요. 감자 농사를 짓는 친구가 감자를 줘서,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식사 대용인 빵보다는 디저트를 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감자로 케이크를 만드니까 든든하고, 버터 향에 구수한 감자 향이 더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의미도 좋고요. 그래서 제철 작물을 이용해서 시즌 한정 메뉴를 하나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자라고 키우는 작물이 한정적이니까 독특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 —

수영 ▶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성규 ▶ 저는 여태까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시도하곤 했습니다. 좋게 보면 많은 경험을 쌓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하고 방랑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옮겨 다닌 이유는 역시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가게를 오픈하고 싶었던 이유도 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고 싶다고 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만 된다면 누구나 와서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편안함과 그런 웃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더 들어서도, 어디서라도 사람들과 같이 웃으면서 늙어가면 좋겠어요. 이걸 한 단어로 줄이자면 행복인 것 같아요. 온몸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평온함을 즐기는, 그런 사람과 마음이 많이 모이면 웃음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내 모습이 행복인 것 같아요. 함께 웃으면서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수영 ▶ 성규 님처럼 타지로 내려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성규 ▶ 저도 무조건 여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살고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진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하고 싶은 일이나, 누리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큰돈에 대한 집념보다는 공간이 주는 평온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온다면 좀 외롭더라도 밝은 미소를 띠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덕에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지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늘 ‘남들에게 지고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남들하고 대치하고 불협화음 일으키고, 이기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밟고 가기보다는 남들보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면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사는 데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조언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590\_ogubbang\_official

# 김정연 김준수

#창업 #2년차 #커피연구소 #3월18일 #영해만세시장 #삶의\_전환





# 진심의 확장

—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 —

수영 ▶ 어떻게 영덕에 내려오시게 되었나요?

준수 ▶ 코로나 팬데믹 때 동생과 가족들이 도시에 있기를 힘들어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로 주로 카페에서 일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는 카페를 오가는 것도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생활 자체가 지겨워지더라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게 공간제약이 없다 보니,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약이 없으니까 이동이 자유로웠던 거죠. 가족과 함께 영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연 ■ 저는 물리치료사였는데요, 대구에서 꽤 규모있는 재활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지하부터 10층까지 있는 큰 병원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보건소에서 전 병동 폐쇄를 하는 거예요. 한창 강경 대응할 때였어요. 의료계라서 더욱 감염에 대한 부담도 크고, 마스크도 일하는 내내 껴야 했어요. 그때는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도 대화 금지. 퇴근 후의 이동 동선도 파악하는 등 자유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재활 필라테스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필라테스 자체도 제약이 너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헬스장도 문 닫고 하는 와중에 누가 운동하러 올까 싶었어요.

물리치료도, 필라테스도 일단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면 경력이 인정되는 일들이에요. 그 상태로 머무르는 직종이니까, 이건 잠시 보류하자. 싶었던 거죠. 보험처럼요. 그래서 무작정 영덕으로 온 거죠.

수영 ▶ 디자이너, 물리치료사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카페와 커피로 연결하게 되었나요?

준수 ▶ 영덕에 온 후에 고민을 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에 환경적 제약이 적은 게 영향이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집에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게을러지거든요. 어딘가 출퇴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정연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고, 나는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장비를 사서 홈카페 겸, 사무실을 꾸리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수소문하다가 지금 카페 자리 - 영해시장을 찾게 된 거죠.

정연 ■ 병원 일을 하면서 커피 맛을 알게 되었어요. 돌파구라고 하죠. 단지 카페인 충전을 위해 마시다가 맛있게 내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발견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대구는 신경 써서 커피를 내리는 카페가 많고 인테리어가 근사한 곳도 많아요. 대도시다보니 접근성도 좋아서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정연=커피라고 이어질 정도였죠.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영덕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카페가 떠오르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수영 ▶ 처음에는 커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필요에 의한 절충안을 찾으신 거군요. 이전 직업은 원래 꿈이었던 건가요?

정연 ■ 보통 성적 맞춰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웃음) 원래 간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비슷한 걸 찾아보다가 물리치료사를 알게 되었던 거죠.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물리치료사가 많아요.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간 느낌이지요.

## — 욕심 없이 치열한 진심 —

준수 ▶ 저는 20살 때에는 음악을 했어요. 예대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집안형편이 안 좋았어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금전적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 20살 초반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음악의 길은 힘들 것 같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서 학교를 중퇴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중공업에서도 일해보고, 요식업도 해보고.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음알음 관계를 이어가다가 [파이어마커스]의 이규동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좋게 봐주셔서 디자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도제식 수업처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디자인도 배우고, 서울에 출장 가실 때도 따라가서 다른 사업체 분들도 만나봤죠. 디자이너이지만 비즈니스에 관련된 분야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과 브랜딩을 빠르게 배웠어요. 시간이 쌓이면서 고려화학매트 같은 곳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그렇게 꾸준히 일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 코로나가 전환점이 되어줬군요. 영덕에는 연고가 있었나요?

정연 ■ 저희가 어릴 때부터 왕래가 잦은 어머니 친구분이 영덕에 계세요. 대구에서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털어놓다가 문득 영덕은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도시보다는 영향을 적게 미쳤더라고요. ‘영해’라는 지역명은 들어본 적이 아예 없었고, 영덕하면 대게 밖에 몰랐는데 무작정 영덕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준수 ▶ 저는 그때 프리랜서였고, 공간을 옮기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같은 곳으로 옮기자는 생각에 저도 같이 내려왔죠.

수영 ▶ 영덕의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정연 ■ 저는 사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질리지 않고 볼수록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는 날 자전거 타고 바다도 보러 다니고, 가까운 곳으로 등산도 갑니다. 저희는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휴무일이 많아요.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있기보다는 카페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편이고, 영덕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산과 바다로 자주 나가요. 최근에 판어대에 올라 보니 산과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준수 ▶ 익숙해지고 나니까, 영덕이나 영해가 작거나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지금도 재밌는 곳을 발견합니다.

수영 ▶ 처음엔 홈카페 겸 사무실로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다가 커피랩(Lab:연구소)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진심이 되셨나요?

준수 ▶ 저는 사실 ‘커피의 맛’이란걸 잘 몰랐어요. 원두마다 다른 향미를 구분도 못하고, 잘 몰랐죠. 그런데 정연이는 늘 진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는데, 직접 내려서 먹기 시작하니까 혀가 맛을 알아버린 거죠.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브랜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 분야랑 커피를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게 파위가 생긴 거예요. 원두와 커피의 고유한 맛을 시각적으로 연관시켜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서 카페에 진심이 되었어요.

수영 ▶ 영해만세시장 안에서 카페를 시작한 게 독특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정연 ■ 처음 카페 자리를 알아볼 때 지금 카페를 시작한 곳과 시장 바깥에 한 곳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카페가 있는 1구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둡고 무서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영덕분들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래서 오히려 죽어 있는 전통 시장 1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사랑받기에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장 상인이 되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월세도 가장 저렴했어요. 그리고 요새는 찾아오는 시대잖아요. SNS로 잘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영 ▶ 처음 카페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시장분들이 두 분 사장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준수 ▶ 처음에는 좀 못 미더워하셨죠. 시장 안에 생동맞게 카페라니. 주변 상인 분들도 아슬아슬해하셨고, 이 공간을 빌려주신 주인 할아버지도 한두 달 해보다가 안 되면 보증금 그대로 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실 정도였어요. 어르신들께 카페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기도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 카페가 영덕 전체로 입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저희를 다 알고 계셨어요.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워낙 이슈가 되었나 봐요. 장옥이었고, 장이 서는 곳이고, 죽어 있던 공간에 타 지역 청년들이 갑작스레 시작했다 보니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수영 ▶ 카페는 보통 도로 가까운데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타 지역에서 와서 지역에 연고가 없으면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정연 ■ 저희가 욕심이 없었던 게 제일 컸어요. 또 카페 경영을 처음 해보니까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내기에는 저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5만 원만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할 땐 디자인 사무실이란 개념이 컸으니까요. 저한테 커피를 마음껏 내려볼 수 있는 놀이터고요.

준수 ▶ 그래서 가게 월세는 사무실 월세다, 커피가 부수적으로 나가면 용돈이다. 생각했던 거죠.

정연 ■ 이제는 저희가 커피를 공부하고 노력했던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커피를 좋아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명절마다 오시는 단골도 생겼어요. 커피 맛이 생각나서 꼭 들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영 ▶ 커피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준수 ▶ 정연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는 했는데, 사실상 카페를 운영하는 건 독학이라고 봐야 해요. 그냥 명분상의 자격증이고,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용적으로, 실전으로 부딪혀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어려운 게 많아요.

정연 ■ 그래서 원두도 하나하나 직접 테이스팅하며 정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정말 예민했어요. 많이 싸웠고요. 그런데 저희 둘 다 하나에 몰입하면 좀 끝을 봐야 해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손에서 못 놓죠. 그러다 보니 자주 싸워도 원하는 목표가 있으니 치열하게 맛을 잡아가고, 세부적인 걸 선택했어요. [좋은 맛은 좋은 재료에서 온다]를 카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삼았고, 많은 대화 끝에 트렌드와 클래식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자고 결론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상징색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어두운 초록색이구요.

성장을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성취감과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커피연구소]라는 말도 일부러 전광판에 단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준수 ▶ 자극을 받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슬로건이죠.

정연 ■ 사실 연구소라는 말이 좀 오글거리잖아요. (웃음) 그래서 처음엔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연구 좀 더해야겠네.”, “연구소장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연구를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 — 함께라서 가능한 확장 —

수영 ▶ 남매지간인 두 분이 같이 일하는 건 어떠세요?

준수 ▶ 재밌어요. 그리고 남매라서 이런 시도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인건비가 전혀 안 나왔어요. 가족이라서 버틸 수 있지 않았





나 싶어요. 타인이랑 동업으로 시작한 거라면 바로 갈라섰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모여서 같이 살아간다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이동도 가능하고, 선택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수영 ▶ 다투는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지 궁금해요.

정연 ■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때 의견 차이로 부딪히는 게 많아요. 성별이 다른데서 오는 시각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명확해요. 오빠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 장비를 도맡고 곳곳이 받쳐주는 뒷심이 있어서 든든하고, 저는 인테리어나 감성에 더 감각적인 편이죠. 오빠가 디자이너다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디테일을 전부 끌어내어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강점은 받쳐주고 약점은 탄탄하게 보완할 수 있어요.

수영 ▶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해 가며 이 공간을 꾸려오고 있으시잖아요. 카페를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연 ■ 생각은 늘 있어요. 일단 저희 테이블이 불편한 게 항상 마음 쓰여요. 처음 카페를 꾸리기 시작하고 이 공간을 봤을 때 여기에 테이블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카페에 고객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많이 고민해요. 저라면 여기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오래 앉아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프(half) 테이블 아웃 형으로 가기로 했어요. 활용도 좋은 바깥에도 벤치를 깔고요. 지금은 콘셉트가 되었죠.

준수 ▶ 확장을 한다면 공간 확장보다는, 고객님들께 다른 경험을 주고 싶다는 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뷰라든지, 디저트 같은 것들이요. 지금은 디저트를 먹기도 협소하고 만들기도 협소해서 좀 어려워요.

정연 ■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고객님들도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한계가 많이 느껴져요.

준수 ▶ 우리를 품기에는 좁지요. (웃음)

“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카페가 저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모든 게 ‘나’를 표현하는 고유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월 18일]이 제가 아니라 ‘김정연’이 운영하는 [3월 18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업에 매이기 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는 눈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  
- 정연

“ 저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가식적인 걸 너무 싫어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나 운영하는 브랜드에도 마음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삶에도요. 그래서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  
- 준수

@0318coffee @horeb\_design



# 느리게 걷는 걸음



## 이수현

#농사 #식물 #치유 #정착  
#2년차 #4H #느리게\_사는\_삶

수영 ▶ 영덕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수현 ▶ 2021년 12월에 블루로드를 따라 트레킹을 하는 <영덕 청년마을 블루로드 대장정>을 통해서 처음 영덕에 오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뚜벅이 마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때쯤 일을 그만두고 한참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장기간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때 트레킹이란 단어가 저한테 꽂힌 거죠.

수영 ▶ 여행으로 트레킹 코스를 선택한 게 멋져요.

수현 ▶ 처음 해보는 거라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었지만 일단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선택한 거죠. 여행이지만 목적은 저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엄청 값진 시간이었어요. 항상 도시에서만 있다가 바다를 보면서 걷는 게 너무 자유롭고, 다 같이 걸으니까 또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을 또 한번 해 보고 싶어서 2022년 4월에 다시 왔어요. 그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한 달 동안 여기 있었어요.

수영 ▶ 다시 영덕에 머무르게 되면서 점차 스며들었군요.

수현 ▶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매일매일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르고 각양각색이거든요. 저는 원래 술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동안 같이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면서 소통이 즐겁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트레킹을 하며 멀리서 영덕을 봤었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시간



은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머무르다 보니 지역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도 하고 친해졌어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롭게 친해진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마당에서 친구들과 바비큐를 해 먹고, 숲에 별을 보러 가기도 하면서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많았죠.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에 청년주택을 신청했고 그렇게 조금씩 연장해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 — 나에게 알맞은 속도로 살기로 했다 —

수영 ▶ 영덕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수현 ▶ 다양한 일을 했어요. 저는 중국어과를 졸업해서 베이징에서 3개월 정도 인턴 생활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서비스업에 오래 있었어요. 3년 정도 바리스타로 꾸준히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비스 직종에 오래 있다 보니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보던 중에, 제가 이전부터 시골 생활을 더 편안해했다는 게 떠올라서 도시를 떠나보자고 생각했죠. 시골에서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왔어요.

수영 ▶ 영덕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딱 들어맞았던 걸까요?

수현 ▶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 계획이 무엇이든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

고나 할까요. 저는 느린 생활을 좋아하고, 자연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생활을 꿈꿔왔어요. 여기 뿌리내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음이 맞는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지속가능성을 본 거죠.

수영 ▶ 수현님은 여기 영덕에서는 무얼 하며 살고 계신가요?

수현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에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농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비단 농사가 아니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일은 정말 많아요. 청년들이 도맡아서 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 이름과 함께 많이 리뉴얼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서 가능성을 봤고, 회원님들과 같이 농업 관련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일손도 도우면서 농업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 ▶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수현 ▶ 아무래도 농사지요. 사과 수확하고, 멜론도 키우고, 포도도 키워봤어요. 콜라비도 제가 직접 심어서 키워보고, 허브 종류도 직접 씨앗을 받아서 키웠죠. 이렇게 파종부터 열매를 수확하는 일까지 전 과정을 다해보니 뿌듯하고, 제가 들이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정 자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서 더욱 마음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 — 식물로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

수영 ▶ 수현님이 지금처럼 느리게 사는 삶을 꿈꾸게 된 전환점이나 결정적 사건이 궁금해요.

수현 ▶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권하셨어요. 관심이 생겨서 먼저 시골 생활을 해보고자 경남 함양에서 일 년 반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좋은 기억이에요. 제 학창 시절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죠. 도시에선 자란 친구들과는 결이 다른 순수함이 있는 시골 친구들도 정말 좋았고, 자연 속에서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친구들이 항상 학원에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이 없죠. 어디 가봤자 노래방 정도였어요. 시골에서는 여기 저기 그냥 다 놀러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기억이 크게 남아서 영덕으로의 이동도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부감 없이 살고 있는 것도 어렸을 적 기억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8살 터울의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하는 건 멋지고, 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고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언니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때부터 언니랑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많이 봤고 다양한 문화권에 정말 다양한 세상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다 보니 여행을 다니고, 어디론가 떠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남미에서 두 달 동안 여행한 일이에요. 다들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수영 ▶ 여행을 좋아하고 체질적으로도 잘 맞으신다면 어디론가 이동하며 살 수도 있을 텐데, 농사라는 업은 아무래도 정착을 해야 하잖아요. 의외의 선택이네요.

수현 ▶ 네, 농사는 뿌리내리는 일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후회 없이 여행을 해봤고, 이제는 떠돌아다니기보다는 어딘가에 적을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귀농, 귀촌을 많이 알아봤고 귀농귀촌체험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1박 2일 체험도 가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영덕은 사람들이 정겹고, 정착하기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수영 ▶ 서비스 직종이랑 농업은 일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확연히 차이 나지 않나요?

수현 ▶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더울 때 일해야 하고, 밖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긴 해요. 대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요. 육체적인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그런 데 약하다 보니 식물들에게 오히려 치유를 받는 거죠.

수영 ▶ 식물에게 받는 치유는 어떤 느낌인가요?

수현 ▶ 일단 식물이 자라는 게 신기해요.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끼게 돼요. 사실 저는 도시에 살았을 때는 식물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수영 ▶ 여기 와서 처음 식물을 접했다는 게 좀 의외예요.

수현 ▶ 어떤 걸 키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고, 키워본 적도 거의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오고 직접 키워보면서,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잘 자라고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 알게 되면서 관심이 확장되고 있죠.

수영 ▶ 식물을 키우는 일یدن, 사람과 함께 사는 일یدن 마음의 여유나 품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온 게 수현 님에게는 심적 여유가 생기는 일이었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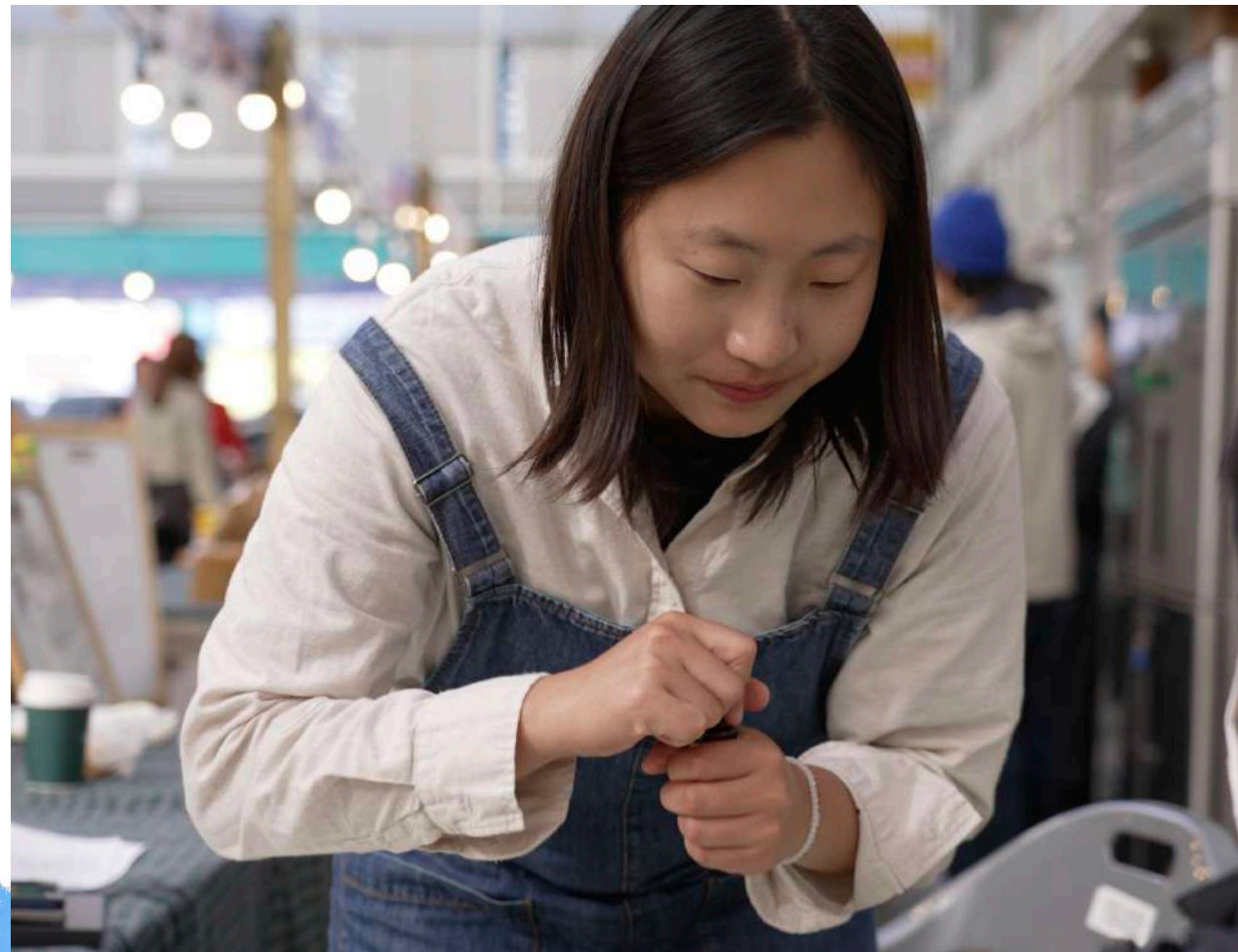
수현 ▶ 그렇죠. 저는 항상 나만의 속도,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에 살면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주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

오니깐 그런 조급함이 사라졌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만의 속도로 걸으니까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걷다 보면 제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뿌리내린 곳에서의 일상 —

수영 ▶ 농사짓는 수현 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수현 ▶ 제일 바쁜 시기에는 새벽에 보통 일을 해요. 새벽 5시부터 10시쯤 까지 일해요. 너무 더워지면 일하기 힘들니까 오후 서너 시까진 쉬죠. 그리고 다시 저녁 8시까지 일해요. 아무래도 바쁜 시기는 봄, 여름에 몰려있고 해가 길어지는 때에 일을 많이 하니까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을 겨울에는 수확 끝나면 거의 쉬어요. 지금은 거의 한량처럼 놀고 있습니다. (웃음)





수영 ▶ 그럼 한가해진 지금은 뭐 하고 지내세요?

수현 ▶ 이곳저곳을 여행 다녀요. 아무래도 농업은 이런 점이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단 거! 일단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주 5일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하루가 흘러가잖아요. 농사가 여름에는 정말 덥고 힘든데 그 시기 지나면 가을 겨울이 주는 여유가 너무 행복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수영 ▶ 영덕에서 친해진 친구들과는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수현 ▶ 여름에는 바다에 자주 가요. 제가 여기 정착하게 된 데에도 바다가 큰 몫 했어요. 이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는데 그때는 1년에 바다를 한 두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지금은 바다가 보고 싶으면 당장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숨어있는 카페도 찾아다니곤 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잔잔하게 청송이나 울진으로 여행도 다니고요.

수영 ▶ 앞으로 수현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현 ▶ 저는 영덕에서 저만의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품앗이를 많이 하지만요. 저의 농장을 꾸려나가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는 기간이죠. 그리고 같이 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농장을 열심히 가꿔나갈 예정입니다.

수영 ▶ 개인의 농장에 대한 꿈과 열망이 엿보이는데요.

수현 ▶ 그렇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야 하니까 (웃음), 개인 농장에서 제가 심고 키우고 싶은 작물을 가꾸고 싶어요.

“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다양한 곳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자기에게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군데 먼저 지정을 해버리면 혹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고, 아니더라도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도 결국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

📍 @hyangyou\_farm @gyeongbuk\_4h



# 김소연

#창업 #상장모 #한복 #디자인  
#1년차 #업사이클링 #아무진\_손끝



## 손으로 만드는 사랑

수영 ▶ 영덕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소연 ▶ 저는 17살 때 대안여행학교를 다녔고, 같이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몇 년 전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님]이 영덕으로 이사를 하면서 함께 지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었는데, 그때 맡아서 하던 일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고사했죠. 그 일을 마무리 하고 2023년에 합류하면서 영덕으로 왔습니다.

수영 ▶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소연 ▶ 고등과정을 끝내고 대학에 갔다가, 휴학 후에 본가인 청주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어요. 전시기획과 큐레이팅도 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동네 할머니들과 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결과물과 굿즈를 제작하는 일을 했죠. 보통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즐겁기는 했지만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쉽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대학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일은 사랑했지만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고민 없이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가 사랑하고, 관계적으로 어떤 균열이 있을 때 부딪혀서 해결이 가능한 사람들이예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보다 쉽게 이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 ▶ **영덕으로 내려온 후,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소연 ▶ [님]에서는 주로 SNS 관리와 콘텐츠 제작과 같은 홍보 업무와, 책자 편집 등의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하던 곳에서 SNS 관리를 도맡아 했고, 책자 편집도 제가 님에 오기 전부터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속 해 오던 일이에요. 사실 공식 계정을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정보전달 역시 해야 해서 처음에는 공적인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꽤 익숙해졌어요. 또, 님의 소소한 일상을 알리는 커뮤니티 계정(@nim\_community)을 관리하며 님데일리라는 주간지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재밌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떠드는 느낌이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 **디자인 업무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소연 ▶ 주로 [상장모]에서 책자 등의 출판물 편집디자인을 하고 있고, 사실 제 전공은 의류 디자인입니다.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게 제가 진짜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웃음)

### — 빼곡한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

수영 ▶ **의류 디자이너시군요. 옷을 만드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소연 ▶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일상생활 할 때 한복을 자주 입을 정도로요. 심지어 운동회 날에도요. (웃음)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중학생 때부터 한복을 공부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천, 실과 바늘을 쥐고 살고 있습니다.

수영 ▶ **어릴 적부터 한복을 좋아했다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복을 좋아하는 거랑 직접 만들어 보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소연 ▶ 한복은 몸의 형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노골적이지 않아도 매혹적이거나 단호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한복은 평면 재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양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곡선으로 도판을 뜨는데 한복은 직선으로 마름질(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마름질된 한복이 입었을 때 입체 패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수영 ▶ **지금이야 한복 만들 때 재봉틀도 쓰지만, 보통 손바느질로 만들잖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연 ▶ 저는 성질은 급한데 의외로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느긋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게 저랑 잘 맞았어요. 뭔가 늘 회전이 빠르고 약간 산만한데 바느질을 할 때는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천천히 지나가는 안정적인 시간이 저한테 좋고, 필요해서 바느질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 손바느질에 개인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소연 ▶ 바느질은 제가 인생에서 제일 길게 해 왔던 일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중 절반 이상을 바느질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복했던 행동이 가지는 힘이 커요.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도 바느질을 하다 보면 조금 진정이 되고, 명상을 하듯이 좀 차분해지면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생활에 급급했을 때나 일에 치여서 살 때에도 바느질을 하다 보면 정서가 차분해지면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입니다.

수영 ▶ 바느질을 이용해서 개인 작업도 하시나요?

소연 ▶ 네. 아무래도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다양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 지내고 있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고민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이다 보니 예전보다 더 많고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요새는 패치 워크 작업이라고, 헌 옷이나 쓰지 않는 원단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지역과 연결되는 생산적인 순환 —

수영 ▶ [상장모]의 공동대표라고 하셨어요. 소연 님의 어떤 조각이 [상장모]의 한 부분이 되었나요?

소연 ▶ 2023년 리안과 함께님께서 지내면서, 경제진흥원에서 경북 청춘 창업 드림이라는 지원사업을 받아서 [상장모]를 열었어요. 제가 잘하는 것과 리안이 잘하는 것을 살리고 싶어서 머리를 많이 굴렸죠. 일단 저는 계속 옷을 만들면서, 버려지는 의류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승화해 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폐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간단한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해요. 원래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하나의 결과물이 된 거죠. 근데 좀 더 공식적으로 변한 거예요.

수영 ▶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나 소재가 지역에 생소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소연 ▶ 그렇죠. 요새는 업사이클링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저희가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어 자체를 낯설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일상으로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덕에 [업사이클링 아트페스타]가 열리게 되면서 축제에 전시 출품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을 두 개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이사이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트리거 페스티벌]에서도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하고,님께서 진행하는 [꽃물캠프]에서도 워크숍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도 알려지고 저희도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지역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재밌었어요.

수영 ▶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면 인상적인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소연 ▶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각 세대의 특징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재밌었어요. 청소년들은 생각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도 금방 나오고,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재밌고 톡톡 튀는 작업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뻘 이모님들과도 함께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머뭇거리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넘어서면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집에서 준비해 오시고 욕심내서 결과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새롭게 준비를 많이 해가게 되고, 결국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왔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이야기 방향부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풍성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 — 공간과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힘으로 —

수영 ▶ 누군가와 재주를 나누고,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군요. 어떤 일들이 지금 소연 님이 사는 삶을 구성하게 했을까요?

소연 ▶ 작년에 일하던 갤러리에서 어머니랑 팀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일단 가족이랑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다툰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랑 어머니는 서로를 잘 아니까 조심하는 부분도 많았고 더 잘 서포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일을 하는 게 즐겁고, 큰 마찰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죠. 가족의 구성원을 넘어 인간

적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수영 ▶ 큰 유대감이 있는 곳을 벗어나려면 그만큼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요.

소연 ▶ 그렇죠. 어머니랑 일을 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지역, 그 분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문화기획이나 문화재 활용 사업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저도 그 관련된 일들을 계속 받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일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공간에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새로 발돋움하고 싶었던 시기에 영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로 와서 함께 지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공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죠.

수영 ▶ 소연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소연 ▶ 손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바느질 작업도 꾸준히 하고, 개인 작품활동도 계속하고 싶어요. 물론 [님]과 [상장모]에서 제가 원치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해내고 싶어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제가 가끔 약속을 잘 못 지키거나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빠져나오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말의 힘을 아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저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매일매일 즐거워요. 가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맞춰 가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은 그냥 툭 털고 일어날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퐁퐁 부은 얼굴 보는 것도 즐겁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일상이 겹쳐 있는 게 큰 이벤트 없이도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나아가서 함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으로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예술가의 새로운 터전, 영덕

# 3

이의연  
최형석  
강리안

# 슈퍼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이의연

#예술 #교육 #싱어송라이터  
#영덕레코드 #일상\_속\_예술

의연 ▶ 저는 지역레이블인 [영덕레코드]의 대표이자 지역예술 교육가이자 음악가인 이의연입니다. 영덕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영 ▶ 영덕에 오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의연 ▶ 저는 경남 양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10대 후반에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소재의 사회적 기업 [노리단]에 소속되어 음악과 예술, 그리고 공연에 대해 배웠죠. 그렇게 지내다 대안여행학교의 음악 교사로 학생들과 세계여행을 8년 정도 했고요. 이후에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NIM]을 설립하고, 멤버들과 부대껴 살다가 다 같이 영덕으로 왔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 케이스죠. 그래서 다양한 것을 보고 느낄수록 필요한 곳에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채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에 항상 예술이 있었어요.



## — 지역과 예술의 건강한 연결고리로 자리하다 —

수영 ▶ 다양한 공간에 존재하신 만큼 예술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고찰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술이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의연 ▶ 예술은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를 가진 활동이에요. 도시에는 예술이 침범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주거하는 모든 공간에 예술이 스며들어 있죠.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더 더욱 그렇고요. 알게 모르게 예술을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없어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공부를 위해서 도시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풀어내기에 과집합, 과열된, 게다가 베테랑들이 득시글대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세상에 이미 알려진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만이 예술계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편에 그 시대를 공유한 다른 예술가들, 혹은 예술노동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몰리는 것 만이 답이 아니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곳에도 사람은 존재했어요. 저는 그런 점이 지역에서의 예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예술가가 필요해요.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죠. 예술가로서도 훨씬 환영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예술가들은 각자에게 지방에서 활동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움직이기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봐요.

수영 ▶ 지역 레이블도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나 보군요. 어떤 단체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의연 ▶ 영덕의 예술가 레이블인 [영덕레코드]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덕에서 주로 활동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영덕’ 레코드인데, 영어로는 영더그 : young thug라고 표기하거든요. Thug life의 thug, 직역하면 왈패들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미국의 힙합씬에서 thug는 슬럼가의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나 사회의 부도덕함에 대항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후드쉽(neighborhood : 이웃사이, 이웃관계)에 기반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에게 지역과의 상성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협업하는 후드쉽이 강력한 레이블이면 좋겠다, 그런 회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수영 ▶ 영덕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의연 ▶ 영덕에 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던 와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

를 낳았어요. 아이가 있기 전에는 삶을 좀 가벼운 태도로 바라봤었죠. ‘아니면 말지.’, ‘재미없으면 재밌는 것 찾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자유분방하게 사고하고 생활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직관적으로 현실에 발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으레 유부남들이 인생이 끝났다거나 삶의 즐거움이 다 지나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나의 소속에, 내 울타리에 탄생하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무수한 질문이 피부로 와닿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속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삶을 일상과도 건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 레이블을 고민하고, 동료들과 만들기도 했고, 개인 음악 작업이나 강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에 관련된 작업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 — 예술이 필요한 곳에서 예술가로 살다 —

수영 ▶ 예술가로서 의연 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의연 ▶ 저는 음악을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극작도 합니다. 현재는 제가 대표로 있는 [영덕레코드]의 밴드 [이우주]에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작곡도 합니다.

음악은 제 사춘기를 같이 지나온 인생의 가장 큰 친구예요. 모든 창작 활동이 그렇듯, 작곡도 입력값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춘기는 내 몸과 영혼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런 커다란 자극을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사춘기를 날 수 있어요. 저는 음악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는 큰 힘을 얻었죠. 그렇게 일찍부터 예술가이면서도 예술교육가로서 오래 활동을 해왔습니다.

수영 ▶ 예술가이면서 교육도 하셨나 봐요. 예술교육가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의연 ▶ 20대 초반부터 세계여행을 다니는 대안학교의 음악 교사로 활동했어요. 8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졸업을 한 친구들 혹은 교사로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 [님]을 만들고, 영덕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확장판인 셈이죠.

지금은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주로 많이 만나요. 가까운 학교 여러 곳에서 음악놀이 강사로, 또 브라질의 풍물놀이 격인 바투카다 수업도 하고 있어요. 밴드 수업도 하고요. 제가 소속

된 [님]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바투카다 동아리 [꽃물클럽]의 주 강사이기도 합니다. [님]의 바투카다&퍼커션 크루 [부그로사운드]의 리더이기도 하지요. 지역의 청소년들 혹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거나,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처럼 진짜 음악이 필요한 곳에 음악을 선물하는 활동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 **필요에 의한 예술이 귀하다는 생각으로 지역에 오셨는데, 시행착오는 없으셨나요?**

의연 ▶ 엄청 많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예술도 어쨌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도시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게을러도 그 트렌드에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알게 모르게 신경을 곤두세우곤 하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트렌드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내 음악을 듣는지에 대해서 훨씬 깊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덕에 와서도 도시에서처럼 최신 유행을 쫓아서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알리겠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익숙한 것을 조금 뒤틀어서 신선하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너무 낯선 걸 갑자기 만나면 이해도 힘들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화나 장르의 예술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가장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볍게 물들여 가는 방법으로 예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 — 슈퍼스타가 목표가 아닌 음악을 하며 —

수영 ▶ **의연 님의 관점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예술가는 스타성이 있어서 전업 예술가로 살아남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유명해지고 싶었던 때는 없었나요?**

의연 ▶ 음, 저는 유명해지기보다는 행복한 음악가가 되고 싶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유명하면 안 행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가지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모두가 자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정욕구예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낸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손뼉 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박수받지 않더라도 다음 작품을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박수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절망감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무대에 오를 제가 좋고, 음악도 무대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평소의 나와 무대 위의 나는 사뭇 다른 존재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전달력이 있는 사람이죠. 무대 위에 가장 멋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그 수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쨌건 제가 하는 음악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 이런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인과 속에서 살다 보니 저는 한 번도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전공하지 않은 음악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밥 말리나 로드리게즈나 레이 찰스도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전공하지 않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길 잃은 사람들이라고 쉽게 여겨요. 하지만 조명이 안 비쳐서 그렇지 충분히 훌륭한 음악가가 득시글해요. 한국은 예술가의 국가예요.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모두 똑같이 파마머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거기에 대한 미적 기준이 있고, 이걸 집단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랑 같아요. 미의 가치관을 다수가 공유하는 거지요. 지역 어르신들,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작업물을 내는 게 저에게 재밌고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제가 그 가치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결과물로 새롭게 풀어내 왔던 거지요. 그게 저의 예술이고 예술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수영 ▶ **의미를 가지고 지역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작업물을 내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영덕에서 했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요?**

의연 ▶ 예전에 영덕에서 <마을노래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로 각각 다른 범주의 지역민들과 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세 곡 중 한 곡을 고래



산 마을의 어르신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에 개명되었던 자신의 일본 이름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분의 삶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보이는 거죠. 이걸 모티브로 노래를 만들었으니 가벼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창 작업 중에 들려드렸을 때는 약간 시큰둥하시더니 작업이 끝나고 완성된 버전으로 들려드렸더니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젊었을 때 즐기던 문화나 예술만 향유할 수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곡은 그것들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곡에 담고자 하는 진지함이 그분들께도 닿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누군가의 삶을 노래로 만드는 것, 예술이 익숙지 않은 사람의 근처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뿌듯한 감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수영 ▶** 그런 마음이라면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과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의연 ▶** 그렇죠. 저는 수업하러 집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면 좋을지,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 볼지를 고민해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교사나 강사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가 보이고, 가르치는 콘텐츠가 재미있거든요. 같이 하는 학생이 스스로를 멋있게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콘텐츠는 단순히 어떤 매체나 이벤트로 남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아이가 나고 자라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나 다른 결의 사람을 만나보는 게 아이의 세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어떤 사람으로 다가갈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수영 ▶**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가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의연 님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의연 ▶** 저는 그게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아도취 같나요? (웃음) 물론 그렇게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저는 ‘멋짐’이라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4살 때 좋아하던 누나가 기타 치는 사람이 멋지다고 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에 좋아하는 대상에게 멋있어 보이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제 예술의 시작이었어요.

“ 저는 아직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좀 멋있으면 좋겠어요. 멋있고, 진실되고. 사색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예술을 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방향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점차 그렇게 되거든요.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되게끔 만들어 주니까요. 삶 속에서 예술은 그런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



## 최형석

#루츠리듬 #영덕별신굿 #풍물\_전자음악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IM #열정과\_실력

# 따뜻한 개인주의자

형석 ▶ 저는 무속음악과 전자음악 아티스트로, [루츠리듬]이라는 전통 예술 단체의 대표이자 [재미난 복수]라는 단체의 일원이면서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 IM]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최형석이라고 합니다.

수영 ▶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형석 ▶ 일반적으로 퓨전 국악은 대부분 서양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 이름을 뿌리(roots:루츠)를 복원하다(redeem:리듬)라는 뜻으로 [루츠리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퓨처국악, 동서양의 악기의 조화와 조합을 이루는 국악의 장르라고 말하는 거죠. 국악, 전통적인 것들을 색다르게 표현하려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전자음악팀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의 정체성, 또는 음악의 기반은 항상 전통 음악과 무속음악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 무속음악이란 장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형석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음악과 악기의 뿌리는 결국 무속음악에 있습니다. 특히 타악기가 더욱 무속,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타악의 본질적인 방면, 다양한 타법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무속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고, [영덕별신굿보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에도 영덕 별신굿 덕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영 ▶ 음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형석 ▶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전자전기공학부였어요. 어찌다 대학교 풍물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업보다 풍물에 더 관심이 생겨서 자퇴하고 지금까지 풍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풍물부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음악을 시작한 건 대학생 때부터였어요. 아무래도 제 루츠(뿌리)는 국악이 바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 학업보다 풍물이 더 재밌었던 형석님은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형석 ▶ 저는 대학교에서도 대장이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 맺고, 케어하는 일이 잘 맞지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하나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활동을 열심히 해요. 대학교 동아리가 그런 곳이잖아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장 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대장을 3년 넘게 해왔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좋은 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을 넘어서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타입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나 음악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몰입하고 있는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물론 혼자한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주입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영 ▶ 영덕 별신굿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형석 ▶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대구 쪽에 있는 농악단에 있었어요. 그때는 상모 돌리거나 북춤처럼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했죠. 연희 쪽에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몸을 다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은퇴하게 되었죠.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보니 무속음악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SNS를 통해서 영덕별신굿의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무작정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이어진 것 같아요.

수영 ▶ [재미난 복수]라는 회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회사에서의 정체성과 퓨쳐국악그룹 음악가의 정체성이 사뭇 다를 것 같아요.

형석 ▶ [재미난 복수]는 직급, 직책을 따지지 않고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을 중심으로 직급을 따져보자면 사무국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제가 잘하는 일이고, [루츠리듬]에서 하는 음악적 작업과 활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어찌다 보니 지금은 둘 다 괜찮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영 ▶ 부산에 계시던 분이 영덕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협동조합 이사장까지 맡으려면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영덕에 머물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형석 ▶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방 호족이 꿈이었어요. (웃음) 저는 수도권 진출이라든가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 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막연하게 나이가 좀 더 들면 한적한 데에서 여유롭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덕 별신굿 등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영덕에 왔는데 오고 가다 보니 영덕이 좋아지고, 일을 하면서 좀 더 발붙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영덕문화관광재단]을 만났고 영덕에서 함께 문화 예술, 문화예술기획 관련해서 일을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걸 계기로 [재미난 복수]가 영덕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영덕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수영 ▶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 IM]을 결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형석 ▶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에서의 삶은 도시랑 달라서, 개인의 역량이 크다고 계속 많은 걸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주해 온 청년들에게 사실상 ‘딴세’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힘을 모아서 개인이나 소규모 단위로는 하기 힘든 더 큰 사업들을 바라보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인 것 같지만 이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 전자음악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어떤 장르를 주로 다루시나요?

형석 ▶ 주로 트랜스 음악을 합니다. 전자음악의 한 종류로 테크노와 하우스 음악에서 파생된 장르인데요, 트랜스라는 이름은 반복되는 비트와 약동하는 멜로디가 청자를 ‘무아지경(trance)’으로 만든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전통음악과 트랜스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반복되는 북소리에요. 이게 심장박동 소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빠른 비트를 좋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유려한 음악보다는 비트가 빠른 트랜스 음악, 더 자세히는 싸이트랜스(psytrance) 음악이 더 취향입니다. 무속음악에서 계속 반복되는 음악을 들으며 정신을 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 지금 하는 음악은 국악과 전자음악의 접목인데, 각각 장르의 매력이라면?

형석 ▶ 국악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아쉽죠. 전자음악의 장점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으로 다가왔



어요. 그럼에도 라이브 공연을 했을 때 뿔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혼자 하는 음악에 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루츠리듬]을 계속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장르를 일원화시켜서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게 작업을 이어 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전자음악의 뿌리도 전통음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음악의 작업이나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도 이런 움직임조차 전통음악으로 브랜딩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 결의 모든 부분을 아끼는 개인주의자 —

수영 ▶ 지금의 형석 님을 구성하는 전환점이 있다면?

형석 ▶ 가장 큰 계기는 군입대였던 것 같아요. 스물네 살에 입대를 했는데 또래에 비해서 늦게 한 편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동아리를 이끌며 3학년까지 이어서 활동한 후에 입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해내야 하는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오히려 군대에서 개인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불침번 하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사색이 길었어요. 저는 전자공학과 학생이었지만 수업보다는 풍물에 훨씬 집중을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현실이나 자책, 조건을 떠나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대생으로는 부족하거나. 훌륭한 공대생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른 거지요. 음악과 예술의 길을 확고하게 선택한 거예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지었던 순간입니다.

수영 ▶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장애물이나 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석 ▶ 제가 가진 가장 큰 복이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실패하거나, 마음을 다해 원하던 일을 놓친 적은 없어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막혔을 때 전환도 빠르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인복 이야기를 하자니, 광혁이 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무 살 때 학교에서 형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풍물패 막내, 광혁이 형은 한참 위의 밴드부 선배였어요. 그런데 형은 군대를 늦게 가





고, 저는 연달아서 풍물패 대장을 하다 보니 점점이 생겼죠. 저는 이전부터 형을 좀 좋아했어요. 당시에 [웨이크업]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주변인이었거든요. 문화계통으로 업을 삼은 유일한 선배였고, 팬으로서 언젠가 형과 같은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군대에서 음악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부터는 어느새 같은 팀이 되고,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여태 같이 있습니다. 동경의 대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수영 ▶ 형석 님이 스스로를 칭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형석 ▶ 저는 스스로를 ‘제로의 아들’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제가 일하는 [재미난 복수]가 오래전부터 부산대학교 앞에서 열던 축제 이름이 <제로페스티벌>이었어요. 스타트 프롬 제로(Start from zero)라는 슬로건을 걸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zero)에서 이퀄리티(평등)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그 무대에서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를 봤고, 매년 축제가 기대되고, 저도 그런 무대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후엔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는 그 축제를 개최하는 회사에 들어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모든 게 이름 따라간다고... 제로페스티벌이다 보니 남는 게 제로였는데요 (웃음), 그래도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라는 의미로 제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회사나 협동조합 등 제가 속한 단체가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시간을 확보해야 삶이 영위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또는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할 동료가 없이 혼자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밖에서 보기에는 좀 까칠한 편이에요. (웃음)

수영 ▶ 일상의 행복을 영덕에서 찾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형석 ▶ 클럽이요. (웃음) 정확하게는 밤에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놀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처음 영덕에 오갈 때에 밤에 편의점에 갔더니 엄청 어려 보이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영덕에서는 뭐 하고 노냐고 물어보니까 “카톡 하고 놀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모일 공간도, 사람도 없어서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놀이와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대표적으로 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덕이 훨씬 다채롭고 재밌는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축제를 만드는 일이에요. 세계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저는 축제가 말로 문화 예술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놀이, 문화, 예술, 교육, 체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끄럽고 센 음악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저는 축제를 만들고 싶고, 영덕에 계속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영덕에서 축제를 만들고 싶고, 기왕이면 지역 사람들이 같이 집중하고 준비해서 축제 하나로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oots\_redeem @yd\_art\_mt @funny.revenge



# 강리안

#창업 #상장모 #그림 #디자인  
#실크스크린 #자유와\_울타리

## 울타리 속으로

수영 ▶ 영덕에는 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나요?

리안 ▶ 사실 영덕이란 지역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NIM]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어요. [님]을 통해서 영덕을 알게 되었고, 올해 멤버로 합류하면서 영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영 ▶ [님]의 합류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리안 ▶ 제가 작년에 [노마드빌리지]라는 대안여행학교에 교사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학교 관련 일로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 회사이자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지내고 활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끝내고 나서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 연속성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리안 ▶ [노마드빌리지]에 교사로 있을 때도 물론 끊임없이 개인의 성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이 아닌 교사로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정과 과정이 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저보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맞추어 활동했죠. 1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을 대하고 교사 역할을 하는 데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님]에서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깊이 있게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 ▶ [님]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리안 ▶ 주로 디자인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포스터 작업이나 외주로 들어오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내부에서 진행하는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꾸준히 그려왔고, 작년부터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조금씩 작업을 시작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는 이것저것 제 분야가 아닌 일까지 망라해서 하기도 합니다. (웃음)

수영 ▶ 아이들과 일 년 내내 왁자지껄하게 같이 생활하셨다면, 교사직이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리안 ▶ 그렇긴 합니다. 저는 사적인 시간이나 개인공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단체생활이나 공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많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몇 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찾은 것 같아요.

수영 ▶ 교사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리안 ▶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진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타투이스트로 활동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수영 ▶ 어떻게 접하게 되었고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리안 ▶ 메이크업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유였는데요. 친구들이 다 화장을 하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데,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에 하는 건데 잘못된 화장법으로 못나게 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예쁘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 메이크업을 배운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얼굴에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얼굴에 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이크업 자체가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어서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 메이크업보다는 연극이나 무대 위에서 하는 분장 쪽을 더 선호하고 즐겨했습니다. 배역이나 극에 따라서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일이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타투는 스무 살 되던 해에 바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메이크업이나 타투 둘 다 도화지가 달라질 뿐, 그림을 그린다는 본질 자체는 똑같아요. 타투를 배우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돈이에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그림으로 돈을 벌어서 삶을 영위하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고민에 빠졌죠. 사실 요즘 전업 화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렇게 찾은 하나의 돌파구가 타투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영리가 이유는 아니에요.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몸에 평생 남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배울 당시에 그 행위 자체가 고귀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영 ▶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영덕에서의 삶으로 이어져 왔네요.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리안 ▶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고 꾸준히 그려왔는데 전문적으



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순수하게 좋습니다. 색연필이나 분장 도구, 타투 잉크 같은 재료들이 알록달록하게 놓여있는 것도 좋고, 제가 원하는 대로 혼합하거나 어우러지게 만들어 내는 순간이나 행동도 즐거워요. 도구를 조합했을 때의 다양성이나 가능성,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수영 ▶ **영덕에 지내보니 어떠세요?**

리안 ▶ 음, 정말 한적하고,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 예명이 만타(Manta:가오리)예요. 몇 년 전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동물밖에 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을 꿔요. 잠에서 깨고 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물로 변한다면 나는 어떤 동물로 변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늘을 유평하는 가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오리는 바다에서 살고, 저도 바다 가까이에서 살고 있으니, 편안하고 좋습니다. (웃음)

## — 좋아하는 일과 직업의 건강한 결합 —

수영 ▶ **[상장모] 공동대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상장모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리안 ▶ 처음에 제가 남에 오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님] 안에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대표님과 몇 멤버들은 여러모로 분리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올해 제가 온 좋게 남에 있었고,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수영 ▶ **[상장모]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회사인가요?**

리안 ▶ [상장모]는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팩토리,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진 디자인 회사입니다. 업사이클링과 실크스크린,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저는 [상장모]에서 실크스크린에 좀 더 집중해서 직접 디자인부터 제품 제작까지 하고 있어요. 실크스크린이 아주 옛날부터 이용되던 아날로그 기법이라는 것도 매력적이고, 도안 스케치부터 프레임을 짜고, 직물이나 물건에 찍어내는 모든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지요. 정직하잖아요. 판을 만든 모양으로, 판을 뚫어서 잉크를 묻힌

만큼 나오고, 그런데 막상 결과물은 단순히 정직한 결괏값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은 과정에 끌렸어요.

수영 ▶ **영덕에서 하신 많은 일 중에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리안 ▶ 영덕에서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실크스크린이나 업사이클링 관련 워크숍인데, 제가 주 강사로 진행한 것도 처음이고 아이템 자체에 대한 숙련도가 높지도 않았던 시기라서 시행착오가 있었죠. 영 4리 경로당에서 페페트병을 색칠하고 오려서 꽃을 만드는 워크숍을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께서도 저희가 낯설고, 타 지역 사람이라는 인식이 커서 처음에는 저희를 꺼려하셨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큰둥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일주일도 두 번씩, 두 달 동안 수업을 나가고 좋은 삶든 계속 마주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저희가 오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지속하기도 힘들어하시던 분들이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더 하자고 하시기도 하고요. 먹거리나 간식도 많이 싸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활동에 대한 호불호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재미와 흥미를 가지는 게 느껴지면서 저희가 지역 안에 녹아들었다는 게 와닿았어요. 게다가 영 4리 경로당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진짜 이웃 주민들을 만나는 느낌이었죠. ‘운동하러 왔다가 너희 봤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 — 최선을 다해 평온함으로 향하다 —

수영 ▶ **리안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리안 ▶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든 메이크업이든 타투든, 그림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요소나 도구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지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수영 ▶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싶은 리안님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면요?**

리안 ▶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어요. 저는 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걸 하고자 노력했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득이 한 곳에 있지도 않았고 한 가지의 일만 해오지도 않아서 삶을 매번 이벤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하고 이벤트처럼 사는 삶이 피로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심적으로 정



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년을 보낸 것도, 영덕에 와 [님]과 함께 있는 것도 최근 들어 아주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수영 ▶ **매번 이벤트 속에서 살다 보면, 생소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 같아요.**

리안 ▶ 제가 일상을 이벤트처럼 살다 보니, 그만큼 저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처음 하는 일들은 다 어려우니까 늘 시행착오였습니다.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생각도 있었죠.

수영 ▶ **가장 무모하게 뛰어든 일은 뭔가요?**

리안 ▶ 결과를 떠나서 저에게는 여행학교 교사로 지내기로 한게 가장 무모하게 결정한 일이긴 해요. 물론 여행학교 교사라는 과정이 늘 염두에 있기는 했지만, 그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시간을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버텨내야 하는 일 말고, 심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금전적으로 안정된 것보다 저 자체가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한 거죠.

늘 학교가 제 피난처였는데, 여행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도망치기보다 그냥 그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한계점을 돌파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지금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간 거죠.

수영 ▶ **무모함은 필연적으로 충동을 가지고 오잖아요.**

리안 ▶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너무 많이 하거나 기대가 컸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보다 일단 부딪혔을 때 직접적으로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충동을 잘 흡수하고 잘 흘려보내야죠.

수영 ▶ **내년(2024년)에도 영덕에 계시나요?**

리안 ▶ 네. 언제까지 정착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요. 저는 원래 반년마다 다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점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그런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품과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웃음)

“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땐 아쉽더라도 후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일상에서 늘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4

정하린  
고현아  
김지원, 정민희



# 정하린

#사진 #기록가 #재미난복수  
#고창농악 #성실한\_기록가



## 다정한 관찰자

하린 ▶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영덕을 오가고 있는, 사진 찍고 아카이빙하는 정하린이라고 합니다.

수영 ▶ 영덕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하린 ▶ 저는 [재미난 복수]라는 회사에서 기록 및 아카이빙을 담당하고 있어요. [재미난 복수]는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영덕까지 확장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영덕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만한 사업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2023년 7월에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 영덕에 왔던 건 축산항에서 열렸던 트리거페스티벌에 합류하면서였어요. 그때는 [재미난 복수] 소속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영덕에 꾸준히 오게 되는 시작점이었죠.

수영 ▶ 자신을 사진 찍고 아카이빙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셨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린 ▶ 제 작업은 일단 사진을 찍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이 기본이죠. 현장 스케치 촬영 같이 사진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빙을 하는데요. 아카이브란 단어의 표면적인 뜻처럼 단순히 기록의 보관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흩어져 있는 기억, 기록의 조각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언어화 작업을 합니다.

## — 애정을 실력으로 끌어올리기까지 —

수영 ▶ 사진은 언제부터 찍기 시작하셨나요?

하린 ▶ 사진은 취미로 시작했어요. 제가 휴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원하는 곳에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전부터 핸드폰 카메라로 일하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계속, 제대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사진을 위한 투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주신 금액으로 단번에 촬영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부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영 ▶ 한 가지에 단번에 투자를 하는 데에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린 ▶ 저는 하나에 꽂히면 좋아한다고 말할 만한 기본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정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준을 올리고, 걸맞은 행동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매번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일단 질러요. 그리고 수습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청 대단한 결정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꿈동이잖아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데 써 볼 수 있는.

때마침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썬에 꼭 빠지게 되어서 공연장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는 카메라가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담아볼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그러다 보니 사진 촬영을 부탁받기도 하고, 그게 일이 되기도 한 거예요.

수영 ▶ 덕업일치(좋아하는 취미와 직업이 일치함)가 이루어진 삶이네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것도,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도 좋은 취미로 머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하린 ▶ 전문성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아무래도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인디밴드 문화의 특수한 점은 공연을 자주 보러 오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경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친분이 생기면 그냥 좋아서 찍던 사진을 의뢰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결이 되어서 직장도 비슷한 방향으로 구하게 됐죠. 사진이란 게 전문인력을 부르기는 어렵고, 내부에 인력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서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니 경험치가 많이 쌓였어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켜켜이 축적된 것 같아요.

수영 ▶ 학창시절의 하린 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하린 ▶ 학생이었던 시기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뜬금없는 선택이었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서 무작정 자퇴하고 한 달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만 봤어요. 못 문학 소년처럼 햇살 맞으면서 책을 보는 걸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신생 대안학교에 들어갔죠. 그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 — 축적된 선택이 가지고 오는 변화 속에서 —

수영 ▶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기억이 있나요?

하린 ▶ 보통 자퇴, 대안학교 졸업, 다시 수능 준비 같은 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런 단발의 선택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변화는 선택의 누적이었어요. a부터 b의 지점이 있다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차츰차츰 쌓이는 시간과 경험의 누적이 결국 변화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좀 중요한 지점이 있었다면 고등 2학년 과정 때 학교에서 유럽으로 떠난 무전여행 겸 버스킹 여행이에요. 풍물로 버스킹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했는데, 새로운 문화권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서 13명의 친구들과 1명의 선생님이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평생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죠. 10대 시기에 서로에게 얼마나 뽀족하게 구는지 아시잖아요.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3개월 내내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기억과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둥글둥글해졌어요. 사람이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도 차츰 알게 되었죠. 같은 경험이라도 모두가 똑같이 기억하지는 않겠지만, 그 경험 덕분에 대안학교처럼 특수하고 좁은 관계에서 졸업하고 좀 더 넓은 울타리에 속했을 때 갖추어야 할 사회성을 학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연습이 많이 되었죠.

수영 ▶ 풍물도 따로 배워서 가신 거예요?

하린 ▶ 학교 수업으로 썰과리를 배웠어요. 유럽 여행 전에 1년 동안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배우고 연습하고, 국내를 무전으로 여행하며 풍물 버스킹을 해보기도 했어요.

수영 ▶ 무전여행과 버스킹을 한꺼번에 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린 ▶ 그렇죠.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풍물을 치는데 무전으로 여행을 다닌다는 모습을 어른들이 엄청 예쁘게 봐주셨어요.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었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사무실 문 두드려서 ‘저희가 여행 중인데, 시장에서 공연을 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행경비를 많이 충당했어요. 게다가 유럽에서는 풍물이 생경하고 옷도 특이하고 예쁘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 여행 시기도 좋았고, 10대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죠. 운이 좋았어요.

수영 ▶ **풍물을 계속하지는 않으세요?**

하린 ▶ 학교 졸업하고는 안치다가 20대 초반에 고창농악을 알게 되어서 소고춤과 북을 주로 배우고 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진이랑 비슷했어요. 우연히 고창에 계신 명인 선생님의 소고춤을 봤는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냅다 고창으로 가서 전수비를 결제하고 두 달 내내 머물렀지요. 7~8주 내내 소고춤을 춘 거예요. 전수관에는 보통 대학교 동아리들이 와서 배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혼자 부산에서 와서 전수 기간 내내 있는 저를 신기해했어요.

두세 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춤추며 악기를 치면 흥분이 완전히 고조되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춤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농악을 지속하게 된 것 같아요. 소고춤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요. 풍물에서 제가 전문이라고 말하긴 좀 부족하지만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죠.

### — 사람 속에서 숨쉬는 다정한 관찰자 —

수영 ▶ 풍물이 단순한 악기연주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소통의 창이 된 거네요. 하린 님이 오래도록 지속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사람과의 연결과 즐거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린 ▶ 좀 아이러니해요. 저는 극 내향인이거든요. 마냥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은 편이라 깊고 좁은 관계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금 하는 활동들은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때보다는 노력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커서 잘하고 싶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도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수영 ▶ 도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산과 영덕을 오가는 삶은 어떤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하린 ▶ 일단 요즘은 일주일의 5일은 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사는 오촌이도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완전한 개인공간인 집이 있는 부산에서는 잘 쉬게 되고, 일하고 함께 지내는 공간인 영덕에서는 활기찬 에너지를 내는 거죠. 예전만큼 폭 젖어서 도시의 문화를 즐기지 못하지만 어차피 이젠 체력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예전처럼 즐길 수 없어서 지금의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영덕에 오게 된 건데, 오다 보니 아침에 방 나서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 하늘도 너무 좋고, 해 넘어갈 때 찬란한 하늘 색도 너무 좋고, 인구밀도가 부산에 비해 낮은 것도 숨이 트여서 좋고, 10분 걸어 나가면 볼 수 있는 영리 바닷가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건물을 같이 쓰는 분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것도 좋아요. 같이 밥을 해 먹는데요, 예전에는 밥 먹는 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일이 지속되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또, 회사 동료와 살을 부대끼고 사는 경험을 하니 익숙한 동료도 새로 만났다는 느낌이 커요. 가끔 혼자만의 공간이 그림지만, 계속 붙어있다 보니 사무실에서 의견공유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합도 빨리 맞춰지고, 일에 효율도 올라가고 동료와 시너지도 좋아지더라고요.

수영 ▶ 새로움을 기꺼이 가져가는 하린 님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린 ▶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재미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예요. 10대 때는 부모님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20대가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어떤 일의 가능성이 사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많아서, 요즘은 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해내려고 해요. 제일 큰 비중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영덕은 주변에 크게 자극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글 쓰고 사색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영덕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도 좋고요. 그래서 개인 작업과 표현을 지속해 보려 합니다.”



@funny.revenge @whatyouseeisnotyours



# 자유로운 나를 만나다

현아 ▶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 고현아입니다.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한국음악을 전공하여 여태 대금을 불면서 연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의 활동은 전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악그룹 [뜨락], 퓨처국악그룹 [루츠리덤], 월드뮤직 [탐] 이렇게 3개의 그룹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어요.

## — 나무에 숨을 넣어 소리를 내는 사람 —

수영 ▶ 대금이라는 악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현아 ▶ 제가 유달리 내성적이어서,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초등학교 때 합창단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때 합창단 담당하시던 지휘자 선생님이 국악 연주도 같이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합창단 내부 프로그램으로 기악을 하나씩 배우고 다루는 활동이 있었어요. 저는 ‘소금’이라는 악기를 먼저 접했고, 실력이 오르면서 잘 연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포항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부산대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본가는 울산인데 포항과 부산, 그리고 지금은 영덕으로 오게 된 거 보니, 제가 경북과 인연이 깊나 봐요.

## 고현아

#대금 #루츠리덤 #연주자  
#어린선생님 #새로운\_정체성

수영 ▶ 대금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현아 ▶ 아무래도 대금은 인간의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니까, 마치 말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수영 ▶ 전공이 직업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현아 ▶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때쯤 음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때마침 좋은 기회로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한국음악이다 보니, 잘하는 친구들은 유학을 서울로 가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갔는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악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음악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수적인데, 서울과 지방은 예술문화나, 배움의 환경이 너무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서울은 수도라서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요. 연주자가 되기에 어렵다고 느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었어요.

수영 ▶ 오, 그것도 좀 새롭네요.

현아 ▶ 제가 좀 차분하고 잔잔한 성격이다 보니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즐기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원에서 한창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팀을 한꺼번에 만나서 갑자기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정체성에 눈을 뜬 거죠. 한 2년 안에 연주자로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3개의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거죠.

수영 ▶ 서울 유학 직후와 지금은 음악, 대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현아 ▶ 많이 달라졌어요. 서울에 갔다 왔을 때 국악을 포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과 능력을 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나’ 생각했고요. 예술을 함에 있어서 연주자가 일종의 기술자라고 바라봤었고, 지식과 기술적 부분에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음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된 이후로는 음악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된 거죠. 예전에 국악을 바라볼 때는 전통의 계승이나 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활동했는데, 최근에는 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표현해 나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훨씬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국악에서 음악으로 생각이 확장되면서, 진지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수영 ▶ 영덕으로는 어떻게 처음 오셨나요?

현아 ▶ 2022년에 [박수부터 시작하는 두드림]이라는 공연에서 [루츠리듬]을 섭외해서 방문한 게 처음이었어요. 공연을 통해서 처음 영덕에 온 거죠. 공연 횟수가 두 번이라 중간에 시간이 며칠 남았어요. 그때 워크케이션(Work+Vaca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적용했어요. 일을 함과 동시에 휴가를 보내는, 프리랜서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개념인데, 첫 워크케이션을 영덕에서 보냈어요. 저는 원래 물 공포증도 심하고, 노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부산에 살아도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영덕에 와서 잠시 남는 시간에 처음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람도 많이 없고, 즉흥적으로 바다에 간 거라서 옷도 전부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놀았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영덕에 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공연자는 공연에 불려주지 않는 이상 거리가 꽤 먼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에,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대금 강좌 수업이 열린다는 거예요. 운명처럼요. 영덕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굉장히 무모하게 저지른 일이었죠. 저는 부산-영덕을 오가려고 운전 면허도 영덕에서 처음 땀어요. 수영도 영덕에서 처음 해보고 자전거도 처음 탔어요.

수영 ▶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군요.

현아 ▶ 처음에는 면허가 없으니 이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면 무조건 하루를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니 수영이랑 자전거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이 생기니까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제일 좋았던 건 나서는 모든 순간마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예요. 그게 엄청 큰 부분이에요. 조금만 돌아다녀도 바다가 나오고, 사계절을 언제나 실감할 수 있는 논과 밭을 만나고,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정말 많이 떠 있고. 사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자연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수영 ▶ 영덕에서 현아 님을 부르는 이름이 ‘앵덕’이라고 들었어요. ‘앵덕’이라는 부캐(두 번째 캐릭터, 정체성)도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현아 ▶ 네, 앵덕살이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영덕에서 보내니까, 이 순간 제 인생의 절반은 영덕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부캐가 생긴 것 같아요. 도시는 굉장히 치열해요. 취직도 고



민해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이나 국악인으로서의 정체성, 책임, 이런 고민에 집중하죠. 반면에 영덕에 오면 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뭘 재밌어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지, 시간이 나면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고민하게 돼요.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영덕’이 생기고, ‘영덕 고현아’로 고민하는 음악적인 부분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변화 자체가 저에게도 정말 좋고 기꺼워요.



수영 ▶ 단순한 관광이나 방문과는 결이 좀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현아 ▶ 결이 다르죠. 스스로를 찾는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가 부산에 비해 도시랑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 눈발이 많고, 실제로 직업이 농부이신 분들도 수업을 듣고, 대게 잡는 어부 분들도 만나게 되고. 정말 다양한 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을 알고 계시는 걸 볼 때마다 엄청 신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는 동네, 그 시절이 이랬겠구나 싶은 거죠. 엄마의 향수를 엿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 — 예술과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 —

수영 ▶ 만나는 사람의 범주가 새롭게 확장된 느낌인데요. 대금 수업하는 건 어떠세요?

현아 ▶ 저는 영덕이 부산보다도 문화 예술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다고 느껴져서 많이 놀랐어요. 새로운 강좌가 열리면 엄청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영덕분들이 양질의 공연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식도 깊고 열망도 있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어요. 저희들도 부산에서 잘 못 보는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 공연을 오히려 영덕에서 만나기도 해요.

대금이라는 악기는 원시적인 악기예요. 대나무 관에 숨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보니 이 순간을 감각적으로 잘 찾아야 하죠. 제가 허를 눌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부분이 많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악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포기를 안 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영 ▶ 대금 수업을 얼마나 하셨나요?

현아 ▶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6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을 수업했어요. 한번 할 때마다 세 시간씩 하니까 짧지 않았죠. 그만큼 성금성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감사지만 나이가 적고, 수강생 분들은 어르신이 많아요. 사실 어린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대금반에 시인 선생님이 계신데, 주도적으로 연습도 같이 하시고 분위기도 이끌어 주셔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끈끈한 관계가 저도 너무 좋아요.



영덕으로 살아가고, 여기서 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로 그분들을 맞이했을 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소속감을 많이 느껴요. 저도 영덕 군민이 된 것처럼요. 옆옆집 대금 선생님이 된 거죠. ‘선생님, 시간 나면 저희 집에 차 마시러 오세요.’ 하시면 실제로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영덕 생활을 더 즐겁게 해 줬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주말농장 개념으로 복숭아나무를 키우시는데, 수확철에 복숭아를 한 카트째로 주셨어요. 이거는 도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느 시골에 가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경험을 했고, 다시금 정(情)을 느꼈습니다.

수영 ▶ 요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아 ▶ 활동을 하면서 기획을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예술가로서 어떤 공연을 해나갈지, 어떤 형태로 관객들에게 다가갈지 고민하면서 연주보다는 사무 업무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덕에 와서는 저 자신과 악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대금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의 기량이 필요한지, 어떤 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 ▶ 앞으로도 영덕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현아 ▶ 대금 수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강생 선생님들이랑 훨씬 더 심도 있는, 어려운 음악들을 같이 연주하며 함께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래불, 병곡면에 오래 머물렀는데 영덕의 다른 지역들을 좀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 저는 빠른년생이에요. 그래서 97년생들 사이에 낄 수도 없고 98년생들 사이에도 낄 수도 없어요. MBTI도 I랑 E 딱 가운데 있고, 성격도 어릴 때는 엄청 소심했다가 대학 때는 엄청 활발했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두 간극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자신이 참 애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활발한 나와 소심한 나, 모두 나의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제 자신이 양극단의 사람들을 모두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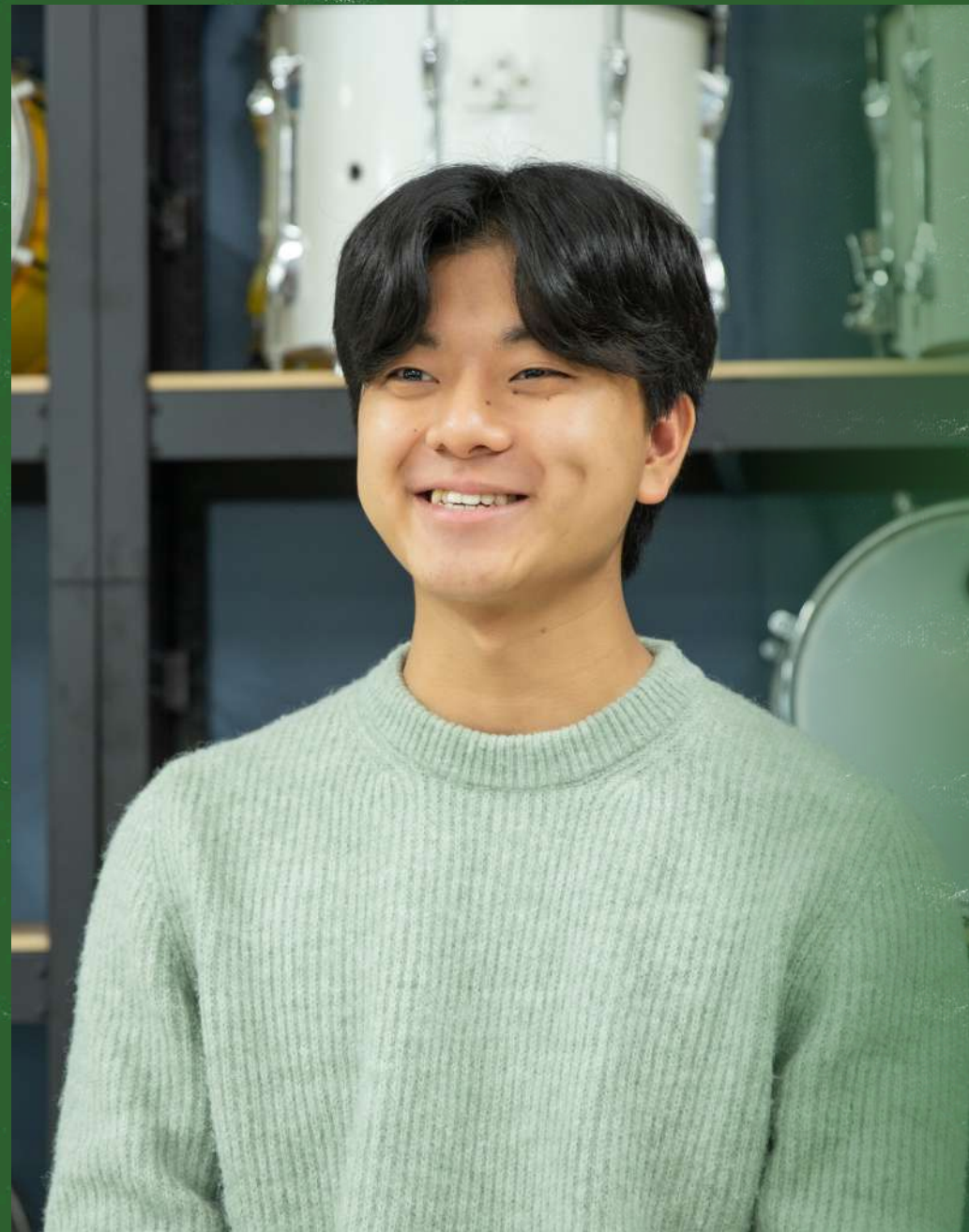
📱 @th\_rock\_\_ @roots\_redeem @tam\_worldmusic @yeongno\_\_





# 김지원 정민희

#밴드\_7번국도 #대안학교 #어린\_예술가 #사회에\_첫발자국



# 배움의 연결

— 지역에서 성장하는 어린 예술가 —

지원 ▶ 저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NIM]과 밴드[7번 국도]의 멤버로 영덕에서 지내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민희 ■ [청년문화예술공동체 NIM]의 멤버이자 밴드 [7번 국도] 드러머인 정민희라고 합니다.

수영 ▶ 영덕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지원 ▶ 저희 둘 다 대안여행학교에서 고등과정을 보냈어요. [님]과 여행학교는 막역한 사이라서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과정을 끝내고 졸업하며 성인이 되어서 뭘 할까 고민했을 때 예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생각을 끝으로 [님]에 오게 되었고 영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민희 ■ 저 역시 같은 경로로 영덕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는 활동적인 걸 좋아했고, 공연하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오래 연주해 왔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서 음악을 지속해 왔습니다. [님]에서는 예술과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덕으로 오게 되었어요.

수영 ▶ 예술을 하고 싶으셨는데, 도시에서 예술과 기술을 쌓는 걸 뒤로하고 영덕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원 ▶ 도시가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도시의 너무 높은 건물이나 막혀있는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학창 시절 영덕을 오가며 이미 여기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어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여기로 왔습니다.

수영 ▶ 영덕에 발 붙이고 살아보니 어떤가요?

지원 ▶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병곡면의 광활한 논과 밭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어요. 주위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하늘이 잘 보여요. 여기는 하늘이 정말 예쁜데, 특히 4시에서 5시가 제일이에요. 해 질 때가 제일 예쁜데 집이 바다와 가까워서 구름도 잘 보이고 노을에 비치는 구름 색깔이 되게 예뻐서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곤 해요. 도시에서는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보는데, 여기는 하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민희 ■ 영덕에 와서 사는 건 정말 좋고 신선합니다. 영덕에 머무르다가 가끔 도시에 놀러 가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문득문득 영덕이 생각날까요. 여기서는 연습 하다가 지치면 밖에 나가서 숨 한 번만 크게 들이쉬어도 힐링이에요. 조금 걸어 나가면 바로 바다가 있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 자체가 힐링되는 공간입니다.

바다 근처에 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찾아서 도시에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번 여름에 같이 사는 리안님이 스킴보드(skimboard)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일종의 서핑인데, 파도와 해변이 만나는 지점에 잔잔하게 깔리는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타는 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강습을 받고, 중고로 보드를 구매해서 저희 집 앞 영리 해수욕장에서 즐겁게 탔습니다. 일상에서 이런저런 새로움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영 ▶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지?

지원 ▶ [님]은 멤버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기 때문에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매 끼니 식사 당번이 있어서 일상을 지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밴드와 바투카다 수업도 하고 있고, [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크루도 함께 해요. 그리고 밴드 [7번 국도]에서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자리 잡았다기 보다는 여러가지를 하면서 제 역할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주로 [님]의 의연 님과 함께 학교에서 음악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어요. 여행학교 때에 기타 수업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전부 고등학생이었고 저도 같은 학생인지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랑은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수업보다 놀이를 훨씬 많이 하기도 했어요. 신나게 뛰고 놀고 하다 보면 돌아올 때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요. 그렇게 학생들과 유대감이 깊어졌고, 빠르게 친해졌어요.

민희 ■ 저희가 아직 나이도 적고 경력도 많이 쌓이지 않았다 보니까 강사나 교사의 직함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게 좀 부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만나니까 마냥 친구처럼 웃고 떠들게 되기도 하고, 가끔 모여서 보드게임이나 이런저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순간도 즐거워요. 그냥 수업 끝나면 헤어지는 사이보다는 좀 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된 것 같아요.

### — 파도를 닮은 음악을 만나다 —

수영 ▶ 두 분 다 밴드[7번 국도]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악기를 연주하셨군요?

지원 ▶ 음악을 제대로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예요. 통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악기를 이것저것 많이 배웠고 여러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기타에 관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 서면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다가왔어요. 물론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예쁘게 생기기도 했어요. (웃음)

지금은 주로 일렉기타를 치고, 통기타도 여전히 치고, 바투카다 악기도 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동아리 형식으로 어쿠스틱 밴드를 하고, 한동안은 기타로 핑거스타일 연주곡들을 많이 쳤어요. 그렇게 기타를 계속 치다가 영덕에 와서 [7번 국도]에 합류하고 최근에 싱글 앨범까지 냈어요. 제 음악 인생 최고의 커리어입니다.



## — 여행이 알려준 일상과 기본 —

민희 ■ 저는 바이올린과 드럼,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살아 왔어요. 바이올린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배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별로 재미도 없어서 그만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워 놓으니 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있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울리는 선율에 반해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밴드 수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오신 선생님이 드럼을 치시는 모습에 반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밴드에서 어떤 악기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합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함께 무대에 곡을 올리는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드럼을 치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더라고요. 지금은 두 악기 다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영 ▶ 학생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와 프로 밴드의 구성원으로 연주할 때의 느낌은 사뭇 다르지 않나요?

지원 ▶ 그렇죠. 사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온전히 재미와 열정으로 밴드를 할 때는, 연습하고 한 번 공연하면 끝이었어요. 같은 곡을 계속하지도 않고, 자작곡이 없으니 연결성도 없죠. 이제는 곡을 만들고, 그 곡의 개수가 늘어나고, 공연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니 연습을 많이 해야 하죠.

민희 ■ 즐겨 듣는 음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4월부터 모던레게밴드 [7번 국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총 두 곡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one love with the 7 street>와 <Natural way to Love>라는 곡인데요, 잔잔하고 느긋한 게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에서 듣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레게가 다른 장르랑 많이 섞여서 새롭게 파생된 장르가 많아요. 레게랑 힙합이라든지, 레게랑 록이라든지.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음악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수영 ▶ 저에게 레게는 신선한 장르입니다. 레게라는 장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민희 ■ 저 역시도 계속 듣고, 접하고 연주하다 보니까 이 장르만의 매력을 완전히 찾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레게의 매력에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익숙하게 들은 장르가 아니다 보니 약간의 촌스러움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다가 힙합과 레게를 섞은 데미안 말리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세련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이후로 레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브로콜리를 초장에 찍어먹은 이후로 브로콜리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웃음) 레게는 언제 들어도 일상생활에 잘 묻어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격정적으로 고조되거나 터져 나오는 부분 없이도 잔잔하게 파도처럼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수영 ▶ 영덕에 오기 전에 같은 학교에 다니셨잖아요.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지원 ▶ 저희 둘 다 중, 고등과정 전부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길 위에서 스승을 찾는 여행학교 [노마드빌리지]는 유목민이란 이름처럼 살다보니 아무래도 지내는 장소가 늘 달라져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고, 일상을 지켜나가니까 삶을 유동적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동하다가 영덕에 오기로 하고, 정착한 이후로는 약간의 이질감도 있었어요.

여행학교를 가게 된 게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중학교도 기숙학교긴 했지만, 일상에 집중해서 저를 확립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웃음) 여행학교에 가서 제가 삶을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일, 그러니까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에서 기본을 다지기 시작했고, 같이 살고 이동하면서 사람한테 마음 쓰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각자 다양하게 살아오던 십 대들이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고 같은 화장실 쓰다 보면 서로 불편한 점들이 솟아나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람을 관찰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필요한 지점을 채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 몸에 배게 되죠.

민희 ■ 여행하는 학교인 만큼 세계 곳곳을 다니는데, 가지각색의 사람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행하면 좀 고생했던 게 더 기억에 남잖아요. 인도여행을 하며 길거리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 며칠을 고생하기도 하고 2박 3일 가까이 기차를 타면서 열악한 환경에 내 몸과 정신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 이 과정이 단지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는 느낌이었어서 좋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서나 문화를 내면에 담을 수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 제 삶을 전보다는 조금 더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삶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기반이 된 경험이었죠.

여행학교에서 식사나 빨래 같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식사 당번으로 처음 밥을 할 때 만든 메뉴가 계란국이었어요. 그런데 요리할 적에 계란을 넣지도 않아 놓고서 왜 계란국 맛이 안 나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란을 넣고 계란국 맛이 나는 걸 보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학교 처음 갔을 때 열여덟 살이었어요. 18년 동안 내 밥상에 있던 음식들을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그 음식을 먹은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가 제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기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학력이라든지, 그 나이대에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경험이나 다들 선택하는 길을 뒤로한 데에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현재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즐겁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들을 꾸준히 보살피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영 ▶**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복잡하게 지내다 또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같이 사는 건 어때요?

**민희 ■** 사는 부분에서는 같이 밥 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메뉴를 할지 머리를 싸맸고, 만족스럽지 못한 음식을 낼 때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밥 해 먹은 지 1년쯤 되니 이것저것 레시피 보면서 하고 싶은 음식도 하고 실력도 확실히 느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정성을 담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재밌고요.

**지원 ▶** 제가 본가에서 지낼 때 저희 가족들은 각자 일과가 굉장히 달랐어요. 누나와 아버지는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편이고, 어머니도 최근까지 바쁘셨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함께 살면서 가장 달라진 건,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서 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수영 ▶** 다가오는 2024년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지원 ▶** [님]에 있으면서 학생들 만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깨너머로 사회생활을 배우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좀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의 리듬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오래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지, 무엇을 일상에 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꽤 심각하게 싸우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양금이 쉽게 남고 잘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에 얽매이거나 끌려가지 않고 싶어요. 그리고 감정이 남더라도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좋



고, 함께 있어 좋다는 생각을 쪽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는 행복이 화두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민희 ■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보러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가 제대로 꾸려지고 공연도 다니기 시작한 게 좋고요. 앞으로 밴드의 드럼에 좀 더 몰두해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저는 누군가와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선택의 순간에 늘 고민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선택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집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수반하는 일을 해야겠죠.

- 지원

“ 삶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떤 공간에서 지내면서 역할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그 분야에 집중하고 공부해서 깊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냥 표면적으로 끌리는 것에 꽂히면 엄청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알을 수도 있죠. 요즘은 지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들어가서 매력을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 민희





영덕의 청년들은 오랫동안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2023년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시골로, 시골로 돌아와 서서히 스며들어 영덕 이곳저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요한 해다.

이들은 짧은 여행으로 방문한 곳에 다시 돌아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며 친구를 사귀고, 단골 가게를 만들고, 매일 바다에 들른다. 고유의 일상생활을 만드는 그들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가며 주변과 나누고 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바다 마을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된 공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공간이다.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과 차마 시도해 보지 못한 일들에 도전하는 삶은, 도시에서만만큼 풍부한 재화나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기회와 실행으로 이어진다.

영덕은 동해안의 허리춤에 자리해 화수분 같은 바다와 함께 살며 삶을 지탱해 왔다. 그렇지만 바다 가까운 곳에 살고자 하여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게 영덕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자원을 가장 참되게 쓴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이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 인터뷰집을 다양한 교집합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다듬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 여겨주시면 좋겠다.

이 모음집을 읽으며 도시의 삶으로부터 환기를 바라는 청년들은 용기를 얻고, 삶을 겹쳐서 함께 사는 청년들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지역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변함없이 자리하는 바다와 같이, 그리고 오색찬란한 물빛과 같이 다채롭고 굳건한 매일을 보내기를 바란다.



글

우수영

사진 / 영상

주현우

편집 / 디자인

강리안

기획

상장모

영덕에 뿌리내린 청년 17인의 이야기

## 물빛뿌리

---

영덕에 뿌리내린 청년 17인의 이야기 <물빛뿌리>는  
2023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록프로젝트입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영덕군과 (재)영덕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 관광마케팅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99  
www.ydct.org  
054)730-5883



당신의 소중한 순간과 기억,  
전환점과 이상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직하고,  
나누기 위하여.

이경훈

이지연

오성규

이수현

이희연

최형석

김지현

고현아

김소연